

| 2005 제10회 학생통일글짓기 대회 입선작 운문집 |

# 통일 꿈 그 에게



통일부 통일교육원

## | 책을 펴 내면서 |

올해는 광복 60주년이자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통일이 이루어져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분단의 아픔을 통일의 기쁨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지난 5년간의 발자취는 어느새 우리 곁에 통일의 희망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열리고, 10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남과 북을 왕래하였습니다. 북녘땅 개성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평화와 통일의 여망을 담아 냄비를 만들고, 신발과 옷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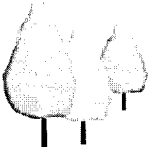
이제 통일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의 그 날을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통일부는 벌써 10년째 「전국 학생통일글짓기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고민하고,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무려 100만여명의 학생이 참가하였고, 이들이 만들어 낸 통일의 소망을 모아 이렇게 책으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작품을 다 수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은 작품 하나하나에서 통일에 대한 진지한 성찰, 뜨거운 열망, 따뜻한 사랑이 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맘껏 젊음을 펼치게 될 통일된 조국의 미래가 무한히 밝아움을 느낍니다.

이 작은 책 한권이 통일의 꿈을 담은 그릇이 되고, 미래를 여는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5년 9월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신 언 상



# 차례



## 서울특별시

- 남북의 화살 / 11
- 할미꽃의 눈물 / 12
- 강(江) / 15
- 호랑이의 꿈 / 17
- 그대와 나의 대화 / 20
- 우리 할배 가신 후에 / 22
- 그리운 님 / 24
- 함께 흘러가자 / 27
- 환희의 날 / 29



## 부산광역시

- 통일이 오는 산길 같이 걷지요 / 33
- 우리 다시 만나세 / 34
- 유월의 내음 / 36
- 우리는 하나 / 39
- 아무리 나뉘도 우리는 하나다 / 41
- 슬픔의 분단이여 / 43
- 통일을 기다리는 마음 / 45
- 꿈 / 47
- 당신에게... / 48



## 대구광역시

- 물려줄 수 없는  
유산 철조망 / 53
- 물려줄 수 없는  
유산 철조망 / 55
- 가슴에 트는 물꼬 / 57
- 통일의 열쇠 / 60
- 소중한 열쇠 / 62
- 탈북자의 꿈 / 64
- 1+1=1 / 66
- 허리 잘린 호랑이의 포효 / 69
- 하나됨의 소망 / 71



## 인천광역시

- 두고 온 울보동생 / 75
- 쇠붙이 한 가닥이 / 77
- 편지 / 79
- 선 하나의 의미 / 81
- 비둘기가 난다 / 83
- 강의 노랫소리 / 86
- 통일아, 너는 좋겠다 / 88
- 종이비행기 / 90
- 귀정 / 93



## 광주광역시

- 쪼개어진 한반도 / 99
- 민족의 씨 / 102
- 그 강 바닥에는 / 104
- 통일이 된 우리나라 / 107
- 꽃이 피기까지 / 109
- 무심한 삼팔선도... / 111
- 통일의 씨앗 / 113
- 갈라진 땅의 희망 / 114
- 향수 / 116



## 대전광역시

- 주인 없는 손가락 한 벌 / 119
- 개성공단 통일 냄비 / 121
- 붉은 철조망  
녹아 쓰러지리라 / 123
- 마음과 실천 / 125
- 유월의 그림 / 127
- 그날이 온다 해도 / 129
- 할아버지의 눈물 / 131
- 할머니의 일기장 / 133
- 통일, 아름다운 함성 / 135



## 울산광역시

- 하나 되는 그날까지 / 141
- 옆집 할머니 / 143
- 의족 / 145
- 백사장에 한반도를  
그려보며... / 147
- 하나에 둘 / 149
- 한 많은 대동강아... / 150
- 통일의 꿈 / 153
- 이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 155
- 백두대간도 지쳐버렸네 / 157



## 경기도

- 통일의 기적소리 / 161
- 좋아비행기 / 163
- 戀戀 / 165
- 통일이 어디만큼 왔니? / 167
- 할아버지의 노래 / 169
- 온정리 상추쌈 / 171
- 휴전선이 실이라면 / 173
- 도라산역에서 / 174
- 양과 / 176



## 강원도

- 연필아 지우개야 / 181
- 누이 / 183
- 이 늙은이 좀 봐 주시오 / 185
- 우리는 하나 / 187
- 나비에게 / 188
- 날아서 만나 / 190
- 한 형제, 한 집에서 / 193
- 통일의 사슬 / 196
- 임진강 / 197



## 충청북도

- 힘을 키워 도와요 / 203
- 죄인의 조국은 / 205
- 휴전선 문답 / 207
- 빨강이와 파랑이 / 209
- 마음을 녹이는 용광로 / 211
- 그날의 눈물 / 213
- 서로 만나서 힘 모아서 / 215
- 20년 후, 통일 20주년 / 216
- 그를 위해 / 218



## 충청남도

- 통일의 자전거 / 223
- 흥시가 붉게 익을 때쯤이면 / 225
- 유월은 있노라 / 226
- 웃음의 꽃으로  
남북을 잇는다 / 230
- 이제는 느끼고 싶습니다. / 232
- 행복한 기다림 / 234
- 통일 놀이마당을 기리며 / 236
- 나무 / 238
- 함께 가야할 길 / 241



## 전라북도

- 하나 되리라 / 245
- 희망의 지우개 / 249
- 오늘, 우리는  
서로 눈을 맞추리 / 252
- 구룡폭포 앞에서 / 255
- 해금강가에서 / 257
- 필연 / 259
- 통일의 그날 / 261
- 내 친구 민들레 / 263
- 하나되는 마음, 하나되는 겨레 / 266



## 전라남도

- 평양으로 소풍을... / 271
- 그곳에 사람이 살던 걸요 / 272
- 꽃의 결실 / 275
- 그리운 통일 / 277
- 절규와 소망 / 279
- 손을 마주 잡으면 / 280
- 종이비행기 / 283
- 통일을 기리며 / 285
- 선(線) / 287



## 경상북도

- 통일의 꿈 / 291
- 시계의 분침은  
수억 번이나 돌았다 / 293
- 통일을 기다리며 / 296
- 통일이 되면 / 298
- 작은 집 / 300
- 아름답고 행복한 꿈 / 303
- 우리는 하나다 / 306
- 듣고 싶어서 / 308
- 우리의 하늘 / 309



## 경상남도

- 노래 / 313
- 산 너머 친구에게 / 316
- 금강산 / 318
- 통일의 노랫소리 / 320
- 꿈 / 322
- 금강산 / 324
- 천사의 노래 / 326
- 미래에서 온 신문 / 328
- 춤추는 금강산 / 330



## 제주도

- 통일아, 좋겠다 / 337
- 오늘도 바람에 연을 실는다 / 339
- 희망을 노래합니다 / 341
- 친구야, 우리 함께 / 344
- 통일이 되면 / 346
- 얼음 촛대 / 348
- 6월의 아픔 / 350
- 통일 장보기 / 352
- 별 / 354





- 남북의 화살 / 11
- 할미꽃의 눈물 / 12
- 강(江) / 15
- 호랑이의 꿈 / 17
- 그대와 나의 대화 / 20
- 우리 할배 가신 후에 / 22
- 그리운 님 / 24
- 함께 흘러가자 / 27
- 환희의 날 / 29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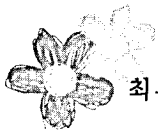
## 남북의 화살

남과 북의 선수가  
팽팽히 겨는 화살 끝에  
앉아있는 긴장감

한반도라는 탁자 위에  
올려진 사과 너머  
과녁을 겨누고는  
화살을 날립니다.

화살은  
'이산가족의 아픔' 사과를 뚫고,  
'휴전선의 흉터' 사과를 뚫고,  
'서로 간의 갈등' 사과를 뚫고 ...  
통일의 과녁에 꽂힙니다.

두 선수가 얼싸안고,  
휴전선이 짓밟힙니다.  
하나 된 한반도를  
우리 민족이 보듬어 안습니다.



## 할미꽃의 눈물

우리가 그어 놓은  
원망의 강줄기를  
말없이 바라보는  
한 할미꽃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영성한 잡초 속에 가려져  
하나 됨을 외칩니다.

그의 얼굴은  
쏟아지는 눈물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고

그의 몸은  
단절의 아픔으로 인해  
기울었습니다.

오늘도 그에겐  
반쪽이라는 슬픔이  
마지못해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구부러진 허리로  
메마른 얼굴로  
다시 또 호소합니다.

우리가 갈라놓은  
한 겨레의 광채를  
하염없이 슬피하는  
한 할미꽃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북녘의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가는  
한민족의 혼이 담긴 붉은 석양을 그리워합니다.

그의 머리는  
빛바랜 기다림으로 인해  
하얗게 변했고  
그의 심장은  
고된 인내와 굴복의 의지로 인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 그의 가슴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높은 몸을 치들어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 한 구석에  
하나 됨의 희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 강(江)

호르라

영겁(永劫)의 침묵을 깨고  
두만강아, 호르라  
백두산을 휘감아 돌아들다  
압록강을 만나거든 그를 껴안고  
쉬임없이 다그쳐 흘러오라

검은 산굽이 골골을 찌렁이는  
너의 장쾌한 사자후(獅子吼)  
나약한 철책 따위가  
감히 뉘를 막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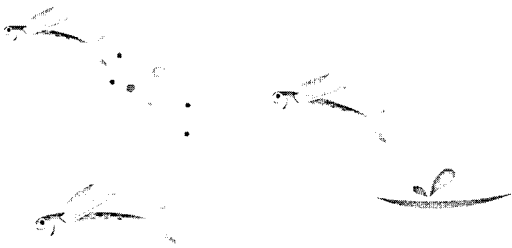
그리하여 한강,  
아! 한강에 이르면  
네 핏속에 침전한 질푸른 설움  
가슴 빠근하도록  
울어 내리어라

너른 벌판을 앞다투어 치달아  
마침내는  
낙동강 어느 가냘픈 지류(支流)에까지 미치면



가물어 속살을 드러낸 나의 강바닥도  
흠뻑 적시우라

흐르라,  
우리 오직  
한줄기로.







## 호랑이의 꿈

해방의 기쁨이  
물결처럼 출렁이고  
천지 열리는 환희 속에  
돌아난 독초  
38선

드높아 포효하고  
세상을 호령할  
우리 호랑이  
그 허리에 동여맨 밧줄

밧줄은 채찍 되어  
우리 가슴을 갈래갈래 찢고  
밧줄은 칼이 되어  
씻지 못할 깊은 상처 남기고

헤어진 가족의  
고통의 피눈물이  
강이 되어 흐른다.



그 줄  
끊어내려  
우리 흘린 피  
은 강산을 적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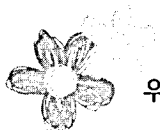
호랑이는  
밭줄에 묶여  
핏빛 울음 토한다.  
뽑아도 뽑아도  
사라지지 않는 독초  
지워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  
휴전선

이제  
호랑이는  
밭줄에서 풀려날  
행복한 꿈을 꾸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 이라는  
마법 같은 단어를 되뇌며  
다가오는  
그 꿈을  
맞으러 간다.





## 그대와 나의 대화

그대는 나를 버렸다고 했소.  
나도 그대를 버렸다고 했소.

우리는 헤어질 때에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만을 남긴 채  
돌아섰소.

하지만  
내가 그대에 대한  
그리움과 보고픔이 깊어갈 무렵  
그대와 나는 다시 만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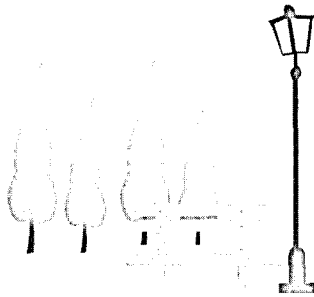
그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했소.  
나도 그대를 버리지 않았다 했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울부짖음과 노력과 이해로  
다시 만나서  
서로에 대한 진심을 확인했소.



이제는 우리는  
서로에 대한 불신의 터널을 지나  
행복의 종착점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것이요.

그대는 나에게 그리움은 없다 했소.  
나는 그대에게 슬픔은 없다 했소.





## 우리 할배 가신 후에

해만큼이나 큰 그리움은  
어느새 뜨겁게 타오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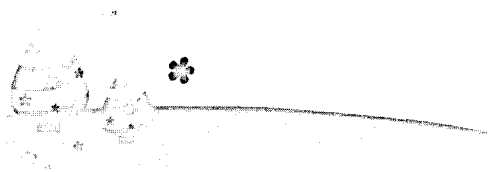
살아생전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잔인하게 잔잔한 그리움 때문에  
우리 할배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셨다.

습관처럼, 밤새 머리맡에 떠다놓으라시던 한 사발의 냉수  
아침이면, 식은땀으로 베갯잇 적시시더니  
한 발작씩 한 발작씩  
물밑으로 기어들던 기다림

할배요, 할배요.  
해 떨어진 그곳에도 새가 나나요?  
눈 벌겍게 씻고 바라보던 북녘하늘  
날아가던 새가 그리 부럽다 시더니  
날개짓에 눈물만 실어 보내시더니  
매일 매일 뿌연 안개만 낀 다시며  
돋보기로 하늘만 쏘이시더니  
영영 하늘지킴이로 우리 할배 가신 후에



무심한 세월의 덧에 걸려  
철조망도 힘없고 삭아 내리고  
허리뻐 할미꽃만 하염없이 할배 그려 휘청거린다.  
우리 할배 가신 후에





## 그리운 님

봄꽃이 가득히 피는 날에  
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밤낮 설쳐 북녘땅만 바라보는데  
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꽃망울에 걸터앉아  
꿀을 먹으며  
하늘을 자유로이  
나는 나비를 볼 때면

저는 나비가 되고 싶습니다.  
팔랑팔랑 날갯짓에  
님을 보러 북녘으로 갈 수 있는  
저는 나비가 되고 싶습니다.

매일 밤 달빛아래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북녘땅만 바라보는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비의 날개는  
휴전선의 철조망에 걸려  
지금은 북녘의 하늘을  
자유로이 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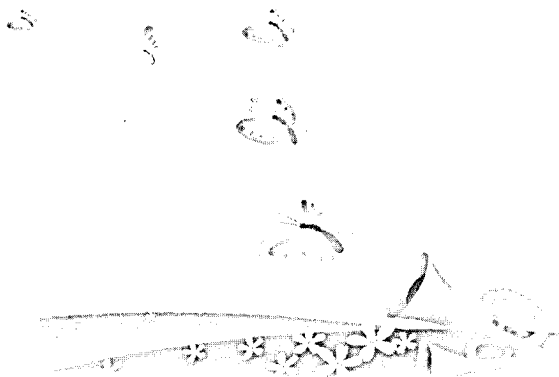
휴전선을 지키는  
북한군인도 남한군인도  
서로 마주보고만 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없이 서로 속만 태웁니다.

한 나라 한 핏줄인데  
이렇게 등 돌려  
서로를 모른 채하는 것은  
조상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시간은 잘도 흘러갑니다.  
민족의 설움도 커져만 갑니다.  
통일의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기회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제는 통일의 기차를 타야 합니다.  
그때쯤 나비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의 종착역에 오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환한 웃음을 지을수 있을 것입니다.





## 함께 흘러가자

여기 아침이 온다  
때묻지 않는 아침,  
숨쉬는 날들의 아침이  
그리고 나는 강물에 엮드려  
얼굴을 비춰본다

거울 같은 수면 위에 어리는  
낮익고, 낯설은 얼굴들  
한때 푸른 하늘과 강물은  
조상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이 땅의 허리는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왔다

바람 따라 꽃씨들이 여기저기 흩날린다  
구름은 산맥과 산맥사이를  
자유롭게 휘돌고  
새들은 신분증도 없이  
국경을 넘나든다



이곳에서 저곳까지  
개마고원에서 백록담까지  
우리들의 심장과 맥박이  
즐겁게 소용돌이치는 그날까지

태양은 흐른다, 구른다  
아침부터 차가운 저녁까지  
따스한 남쪽 하늘에서부터  
북쪽 하늘까지

우리들에게 이 땅의  
순수한 숨결을 맡게 해다오  
새들의 자유로운 날개를 달아다오  
함께 둥글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나는 이 강가에서  
먼 땅을 바라보며 서 있다



## 환희의 날

암전 -

팽팽한 증오의 결정

곧이라도 버혀낼 것 같은 그 위력에

먹먹한 구름 속을 맴돌다 사라진 절규

부르르 -

떨려오는 발등 위로

움아매는 얇은 사에

온몸에 절로 맺히는 별건 눈망울

투둑 -

육신을 타고 흐르는 검붉은 비 아래

옛 명성을 화염 속에 내던져버린

대지의 여신과의 서글픈, 환희의 입맞춤

썩아 -

부드럽게 휘어 감는 너른 바닷소리

그 넉넉한 애정에 절로 단혔던 손가락이 풀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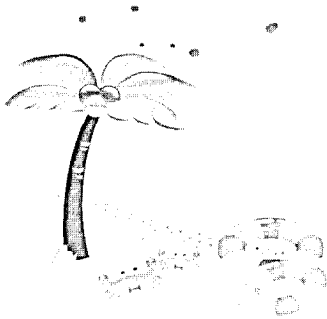
날려간, 손금에 박힌 고통의 실 자락



참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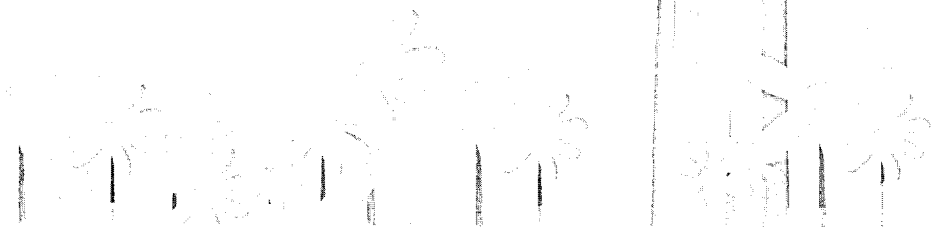
온몸을 시원하게 어루만지는 강물과의 감동적 재회  
막힌 그 대지아래 흐르던 희망으로  
수만년 역사속 맺은 고결한 약속으로  
그 모오든 피가 한데 뒤섞이는

나 홀로 맞이하는 고독한 환희의 날



- 통일이 오는 산길 같이 걸지요 / 33
- 우리 다시 만나세 / 34
- 유월의 내음 / 36
- 우리는 하나 / 39
- 아무리 나뉘도 우리는 하나다 / 41
- 슬픔의 분단이여 / 43
- 통일을 기다리는 마음 / 45
- 꿈 / 47
- 당신에게... / 48

부산광역시









## 통일이 오는 산길 같이 걸지요

나는 알지요  
아카시아 꽃향기  
우리 할머니 마음속  
고향까지 날아가는 걸

할머니는 알지요  
고향에서 날아오는  
연상홍 꽃향기  
가슴 속에서 날고 있는 것을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꽃향기 데리고  
할머니는 연상홍 꽃향기 데리고

굽이굽이  
통일이 오는 산길에서  
같이 걸지요



## 우리 다시 만나세

마음속의 가시덩쿨  
던져버리고  
우리 다시 만나세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세  
죄 하나, 미움 하나  
멀리, 날려 보내고  
하얀 비둘기처럼  
웃으며 우리 다시 만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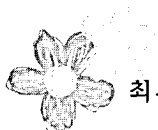
억지로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아우를 찾아 헤메이던  
그날 밤

붉은 액체를 보이며  
딸 아이 앞에서  
쓰러지던 엄마가  
눈 뜨지 않던 그날



내 가슴이 울던  
그날은 잊어버리고  
즐거이 손 흔들며  
우리 다시 만나세





## 유월의 내음

해마다 6월이면  
진혼곡 은은히 울리고  
도진 척추병처럼  
이 땅 위에서 휘청거리는  
철조망의 그림자  
단호하게 등 돌린 사연들로  
가슴 아픈 시간을

누구도 거절할 수 없이  
가슴 속으로 섬뜩섬뜩 파고드는  
백두 천지의 소리  
마음 마음마다 새겨두고  
쉽 없이 살아온 아픔들

한 번도 잊지 않고  
지친 자릴 닦아내기 위해  
가슴 조이던 사연  
드디어 두 역사는 소리쳐서  
하나로 어울려



고통의 자욱을 어루만진다.  
등글게 등글게 손을 잡고서  
목청껏 터지는  
눈물겨운 곡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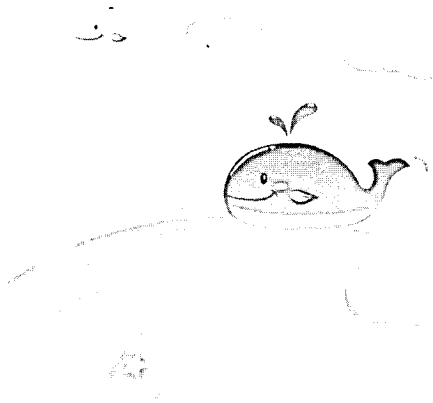
몸부림치며 부대껴온 동강난 산하  
뺏속 깊이 아려오는 아픔도  
홀쩍 뛰어넘은 반세기  
아직도 아물지 않은 민족의 상흔이  
유월 보리밭 위에서 일렁인다.

통곡의 강물은 멈추지 않은 채  
작은 메아리로  
바람에게 속삭인다.

무지갯빛 꿈이 살아나  
통일의 소망  
날개 펼치는 순간  
겨레의 얼이 숨 쉬는 이 대지 위에



더 큰 부활의 약속  
평화의 아침 밝아 오리  
유월의 내용은  
진달래꽃처럼 붉다.





## 우리는 하나

휴전선이 그어져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서로 싸움을 해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땅을 가로막은 철조망에  
내 가족들이 헤어지고  
내 친구들과 이별을 해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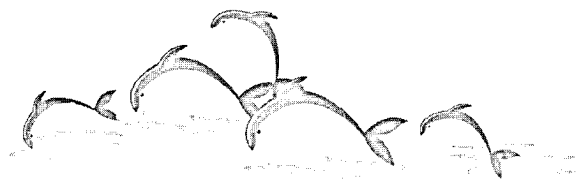
남과 북 서로를 그리워하며  
“그리운 금강산아!”  
남쪽에서 소리치면  
“보고 싶다 한라산아!”  
북쪽에서 메아리로 돌아오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자식처럼 남과 북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을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 노래로  
물결칩니다.

갈라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로 물결치는 날  
금강산에서 한라산까지  
마라톤으로 우리 모두 경주하며  
큰 파도가 되어 넓은 바다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 아무리 나눠도 우리는 하나다

몸은 아무리  
나눠져 있지만  
마음만은 나눠지지 않는  
우리는 하나.

조국의 분단을 하나로 이어  
젊음을 표출시키며  
손과 손이 맞잡을  
우리는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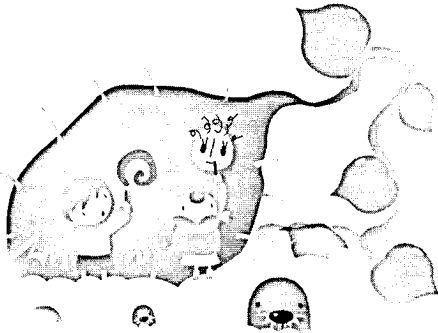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분단국가지만  
그래도 떨어질 수 없는  
우리는 하나.

사랑과 대화와 우정을  
씩 틈우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는 하나.



우리의 반쪽이며  
한민족이기에  
나뉘질 수 없는  
우리는 하나.

아무리 나뉘어도 우리는 하나다.





## 슬픔의 분단이어

넓고 푸른 하늘 한 덩어리  
등이 갈라진 채 두 쪽을 내서  
허공을 주시하며 한 쪽을  
도모하려 한다.

철마는  
그들의 길을  
잃어 버리고  
두 조각 난 대지는  
괴성만을 지르고  
바람은 회한의 메아리만  
울리누나.

우리 마음의 응어리는  
분단의 조각이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기에

우리 마음의 옥구슬도  
분단의 눈물이다.  
누구도 그 눈물을  
볼 수 없기에



우리의 두 조각을  
놓지 못한다.

그대여  
긴 세월을 보낸 손을  
한번 잡아보았으면...

피 흘리는 두 하늘 사이도  
탄식하는 두 대지 사이도  
새살이 오르듯 붙을 것이다.





## 통일을 기다리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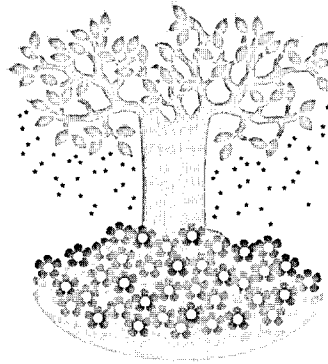
끊어진 철길 사이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이  
슬퍼 보이는 것은  
부모 형제 보고 싶어  
눈물자국 마를 날 없는  
안타까움 때문인 것 같다.

산새들 날아다니는  
맑은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는데  
북녘의 들판을  
달리고 싶어 하는  
끊어진 철길 위에는  
회색빛 구름만  
낮게 맴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녹색 신호등이  
켜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통일 노래 함께 부르며  
통일 깃발 휘날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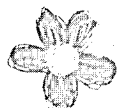
촉촉한 시간의 그물로 잔  
할아버지의 가슴팍에 깊게 흐르는  
슬픔의 강이 있다.

때로는 그 강물도 땀별 같은  
분단의 세월에 찌~익 가슴 터지는  
소리의 헛기침으로 밤잠을 설치며  
토약질을 하시곤 했다.

굳게 맺은 통일의 약속들은  
미꾸라지처럼 헛바닥을 비껴나가  
오늘도 분단의 강물에서 자맥질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예비하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처럼  
역사의 강을 거슬러 올라야 한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돌아난 검버섯이  
통일의 꽃으로 부활하는 그날을  
손가락 집으며 꿈꾸어 본다.



## 당신에게...

여보...

북쪽마을 우리가 살던 곳에는  
지금쯤 진달래가  
한창이겠지요

우리 집 울타리 밑에  
피어있는 민들레는 아마  
홀씨 되어 날아갔을 거구요.

달이 뜨면  
반딧불이 피어나  
당신 마실 가시는 길  
환하게 비쳐주겠지요.

여보... 당신...  
우리가 어느새 헤어진지  
50년이 넘었습니다.

멀어서 못가나요.  
몸이 성치 않아 못 가나요.





여보... 애기 아버지...  
여기도 때가 되면  
우리가 살던 곳처럼  
진달래가 지천에 피어나고  
꽃바람에 민들레 홀씨도 날아다닙니다.

모든 게 내 눈앞에  
그대로인데  
당신만 없네요.

여보...  
당신 보고픈 마음  
지평선 너머 바다보다  
넓고 넓지만  
당신 만나러 가는 길  
힘하고 힘해 살아있는 소식  
바람에 부쳐 보내드리오리니  
행여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비록  
떠다니는 구름에, 흘러가는 강물에



뜨고지는 해와 달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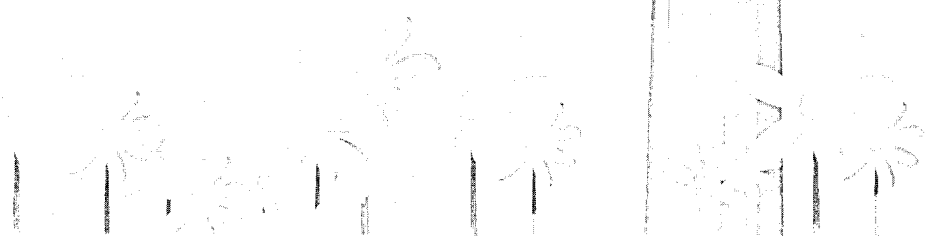
언젠가 당신 품에 안겨  
하루가 짧다하고  
그동안 당신 없어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숨이 다할지언정 그것이 끝일까요.

여보...  
철조망사이로 실바람이 불어옵니다.  
꽃 내음 가득 실어가지고선

아마 북쪽마을 우리가 살던 곳에는  
지금쯤 진달래가  
한창이겠지요.

- 물려줄 수 없는 유산 철조망 / 53
- 물려줄 수 없는 유산 철조망 / 55
- 가슴에 트는 물꼬 / 57
- 통일의 열쇠 / 60
- 소중한 열쇠 / 62
- 탈북자의 꿈 / 64
- 1+1=1 / 66
- 허리 잘린 호랑이의 포효 / 69
- 하나 됨의 소망 / 71

대구광역시







## 물려줄 수 없는 유산 철조망

한반도를  
두 동강 내어서  
떡 - 하니 서있는 철조망.

바람아, 어서 저 철조망 너머로 가서  
북녘땅 공기를  
신고 오너라.

새들아,  
어서 저 머나먼 백두산으로  
훨훨 날아가서  
백두산의 꽃씨를  
물고 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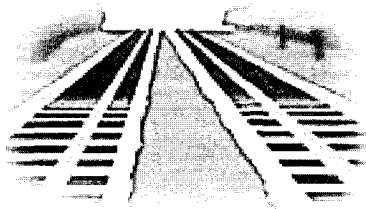
달아, 어서 저 북녘땅을 비추어  
우리 동무, 우리 민족의  
소식을 담아오너라.

바람도 새도 달도  
모두 보내주면서



왜 우린 반세기 동안  
서로 갈라놓았니?

이젠 그 철조망을 허물 때다.  
파아란 한반도국기엔  
철조망이 없잖니?  
내 가슴 속 철조망 너머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그 철조망 너머로  
평화의 손을 내밀어 보자.





## 물려줄 수 없는 유산 철조망

민들레야  
후 불면 날아갈  
민들레야

낮설게 박혀있을 철조망  
그 너석을 넘어가라  
지도 위의 빨간 점선  
네가 넘어가라  
네가 ...  
네가 ...

그리고  
가다가 가다가

나처럼 귀가 큰 사람 보거든  
나처럼 코가 둥근 사람 보거든  
나처럼 눈이 젖은 사람 보거든  
혹시 우리 엄니 보거든

꽃바퀴에 앉아라  
내 소식 들려드리고



머리위에 앉아라  
흰머리 헤어보고  
눈가에 앉아라  
눈물 닦아드리고  
애기해드려라  
다음엔 나도 꼭 가겠노라고...

민들레야  
후 불면 날아가 버릴  
민들레야







## 가슴에 뜨는 물고

그렇게 떠돌던 별들도  
입을 다문 한 밤  
할아버지의 팔을 베고 누워  
가슴과 가슴이 서로 발을 걸고  
마른 목청 돋우지도 못하고  
조각난 새벽에  
수천의 새벽에  
수천의 탄피로 흩어지며  
격류를 헤치고 있는 꿈속의 뗏목을  
나는  
보았다.

기꺼이 하루살이 되겠다던  
그 여름날의 어린 이름들이 안긴  
깡마른 비석 위에 비둘기 몇 마리  
날 선 눈빛으로 나라의  
녹슨 허리를 닦고 있는 오늘 밤도  
무릎뼈 아래로 밤새도록,  
군화의 발자국 밤새도록, 들리지만  
강과 강은



동해와 서해에서 서로 얼싸안고  
산과 산은  
천길 가슴으로 체온을 나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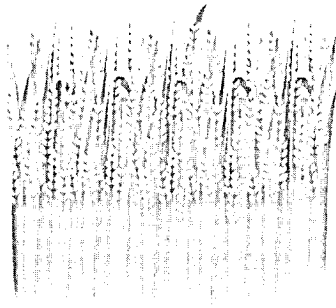
아, 부끄러운 허리  
살아서 시퍼런 하늘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단단한 울음을 한 삼씩,  
한 삼씩 떠내고 있는  
나라의 들판  
꽃등을 시큰거린다

저기  
찬바람 불어도 한발 한발  
초목의 고단한 어깨를  
하얀 손목으로 짊으며  
돌아오는 나라의 햇살  
보인다.



젖은 나라를 띄어 널며  
허물어진 들판 여기저기 손질하는,  
가슴에 물꼬를 트는.





## 통일의 열쇠

지도에서 본 끊어진 한반도  
나에게는 실처럼 가늘게  
느껴지는 휴전선이지만

할머니에게는 동아줄처럼  
굵게만 느껴지나 봅니다.

TV에서 본 이산가족  
나에게는 다시 만날 수  
있어 행복한 가족으로 보이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슬픔이  
가득한 이산가족들이 눈에  
아른거리나 봅니다.

나는 통일의 열쇠가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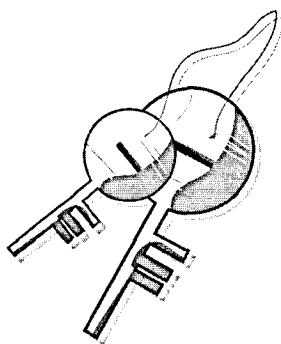
지울 수 없었던 휴전선 지워지고  
만날 수 없었던 이산가족 만날 수 있는  
통일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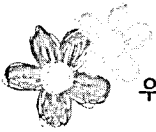


나는 오늘도 꿈을 꿀 것입니다.

나팔꽃 덩굴이 담장을 넘는  
그날까지

남북이 금수강산 오갈 수 있는  
그날까지.





## 소중한 열쇠

철조망 쓰러진  
그 사이로  
당당하게 놓여진  
한줄기 철로.

왕관 쓴 금강산  
앞자락에서  
사이좋게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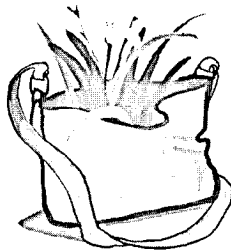
현무의 땀과  
주작의 힘으로  
개성에서 만들어진  
웃 한 벌.

호랑이 허리 잘린  
옆구리에서 발견한  
소중한 열쇠.



어두운 총칼의 역사 속에서  
겨우겨우 찾아낸  
소중한 열쇠.

이제 다툼의 가방은  
던져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나가자.





## 탈북자의 꿈

낮설지 않은 이국 땅  
소나기처럼 퍼붓는 매질 피해  
영사관 들어서서도  
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지금 이곳  
남촌에  
구름처럼 닿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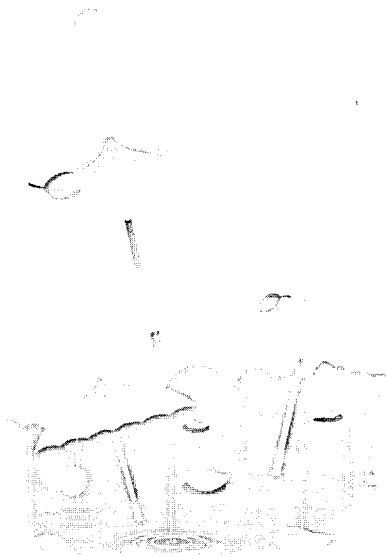
그러나  
돌맹이처럼 널브러진 이해(利害)에  
모진 매질도 견뎠던 눈물은  
누더기 같은 옷에 스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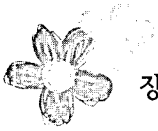
그것이 외롭고 가난해도,  
그러나 벗자.  
눈물방울 스며진  
누더기 따위,  
이제는 벗어버리자.  
그리곤 그 뜨거운 괴로움을





철조망 그와 함께  
태워버리자.  
더는 기억할 수 없도록.





| + | = |

똑, 똑,  
물방울 하나  
그리고 또 물방울 하나  
저 먼 하늘위에서  
함께 구름이었을  
물방울이 갈라지네.

똑, 똑,  
물방울 하나  
그리고 또 물방울 하나.  
더해지면  
더 큰 물방울.

작은 개울물에서  
큰 강으로  
넓디넓은 바다까지  
함께하는 물방울.

찌지직,  
5000년 민족역사  
한순간에 갈라지네.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  
5000년 동안 함께 나누었을  
한민족의 삶

하나의 물방울 같은  
우리 사람  
나뉘지면  
하염없이 작아지고  
더해지면  
하염없이 커진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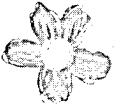
마음 더해 이뤘던 광복  
더 큰 마음 더해  
통일을 이뤄보세.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 되듯



세계 속의  
하나 된 나라 되어보세.





## 허리 잘린 호랑이의 포효

아아,  
오늘이 며칠이던가.  
요즘은 무슨 계절이던가.  
몇 년이 지났던가.

댕기머리 곱게 내린  
불 바알장고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이제는,  
희끗희끗 구부정한 노인네가 되어  
내뿜는 한숨소리.  
무거운 한탄을 풀어놓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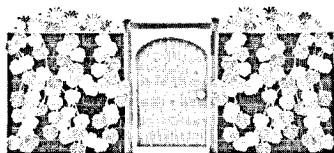
이마에 움푹 패여 안쓰럽고,  
눈가에 자리잡아 눈물겨운  
60년 이내들의 가슴은  
몇 번이고 몇 백 번이고  
북녘과 남녘을 오가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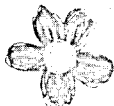
굳게 잠겨 서러운  
한반도 허리의 자물쇠는  
언제쯤 깨질 수 있을까?



닿을 듯 닿지 않는  
남북의 손끝이 애달프게 타오르고  
긴 세월,  
높디높은 분단의 벽에 서서  
발꿈치 들고 결눈질 하던  
이내들의 가슴도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몇 십 년 세월동안  
우리의 마음은 겨울이건만  
문 밖은 야속하게도 봄이 한창이다.





## 하나 됨의 소망

해마다 오는 유월에는  
한철의 비바람에도 끄덕 않는  
아직  
허물지 못한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뿌리 깊은 그 상처  
마음속 묻어둔 채 지나온  
어언 반세기

그 속엔 이산의 슬픔도  
나뉘어진 혈육의 끈도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날의 상처  
철조망 사이로  
서로를 잃어버린  
너와 나



무엇을 지키기 위한  
총, 칼의  
겨눴이었는데...

그러나 어느덧  
그날의 상처는  
반세기란 세월 속에  
녹슬어만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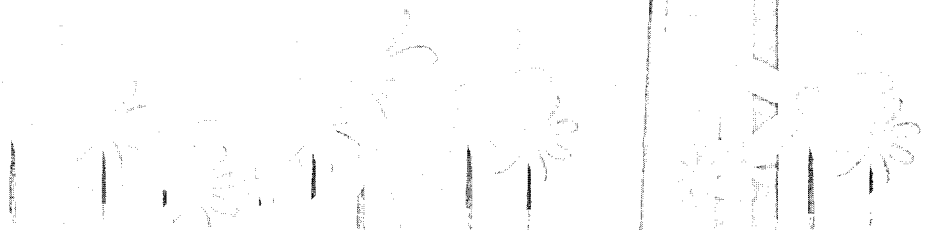
너와 나  
새 살이 되어  
상처가 아무는 그날

이 땅 위  
하나 되어 흐르는 저 강물처럼  
새 살 위  
하나 된 이 땅에  
너와 나 우리 되어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두고 온 울보동생 / 75
- 식불이 한 가닥이 / 77
- 편지 / 79
- 선 하나의 의미 / 81
- 비둘기가 난다 / 83
- 강의 노랫소리 / 86
- 통일아, 너는 좋겠다 / 88
- 종이비행기 / 90
- 귀정 / 93

인천광역시







## 두고 온 울보 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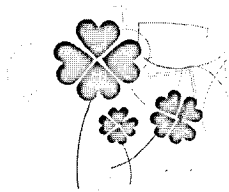
밭에 가신 엄마 찾아  
굴뚝 뒤에서  
떼를 쓰며 울던 동생  
너무 생각나  
할아버지 술 드시면  
굴뚝 뒤에서  
술이 다 깨시도록  
우셨다고.

울보 동생 하도 미워  
끌려주려고  
덧밭에 고추 따다  
입에 문질러 주면  
발을 동동 구르며  
울던 동생 생각나  
할아버지 울 곁에  
고추를 심었다고  
울보 동생 하도 울어  
유월 장마비 보고  
네 눈에서 내리는  
눈물보다 작을 거라고



흐느끼던 울보 동생  
놀리던 것 생각나  
비를 맞고 다니시던  
우리 할아버지

유월 그 장마비를  
다 맞으시고  
칠월에  
할아버지께서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고향집도  
가보지 못하신 채로….





## 쇠붙이 한 가닥이

쇠붙이 한 가닥이  
이 한 몸을 가르누나

햇빛조차도  
쇠붙이 한 가닥에  
나뉘는구나

저 선을 끊을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저 선을 끊을 수 만있다면  
다시 한 햇빛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저 쇠붙이 한 가닥이  
우리네 몸도 마음도  
떨어지게만 하는구나

저 쇠붙이 한 가닥이  
무엇이길래



기껏해야 쇠붙이가  
무엇이길래….

아 아  
서글프고  
또 서글프다

이 서글픔이  
끝나는 날  
한반도의 울부짖음  
또한 끝나리라

아 아  
이 한반도 땅이  
넘치도록 서글프다



## 편지

빛바랜  
누런 종이 안에 누나  
살핏줄같이  
좁다랗게 얽힌  
너와 내가  
흐르고 있다.

탕. 탕.  
몇 발의 총성이  
우리를 갈라놓았고  
이별의 슬픔은  
응어리로 남아  
너와 나의 편지에는  
눈물 자욱만  
빼곡하다.

이제는  
50년 세월보다  
더 서글프게  
우리 사이를 흐르는  
저 강물에



새로운 편지를  
떨우려 한다.

우리의  
맞잡은 두 손이  
그 무엇보다  
소중함을 알기에

더 이상  
눈물 자욱이 아닌  
새 희망의  
목소리로  
편지를 쓴다.

보낼 곳을  
쓰지 못한 편지가  
주인을 찾아

오늘도  
흐르고 있다.





## 선 하나의 의미

같은 빵이라도  
북은 닭알빵,  
남은 계란빵

같은 아이스크림이라도  
북은 얼음과자,  
우린 아이스크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땅 가운데  
찍 그어져 있는  
선 때문일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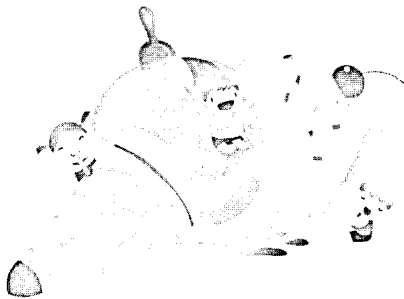
그 선 때문에  
이산가족들도 아파하는 걸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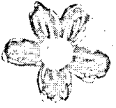
사랑도, 정도  
두고 왔을 테니까



선 하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니까

지워본다, 지워본다  
선 하나를  
이어본다, 이어본다  
우리의 땅과, 사랑을...





## 비둘기가 난다

'으악! 폭탄이다!'  
'오빠!'  
'안돼!'  
악몽이다...

파란 하늘위로  
비둘기가 난다  
내 마음 다리 되어  
내 소원 날개 되어  
비둘기가 난다.

한반도라는 땅에  
대답 없는 오라버니  
소식 전해주려  
북쪽으로 간다.

낮이면 햇님 볼 때  
그 얼굴  
밤이면 달님 볼 때  
그 얼굴



이제는 너를 봐도  
그 얼굴

마음속 사진 2장  
이 땅에서 못 보고  
저 파란 하늘에서  
볼라나

그때 만나면  
한번 웃어봐요  
외로움을 담아 웃고  
한을 담아 웃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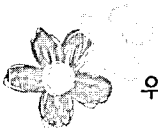
비둘기야,  
너는 남북으로  
잘 나는데  
나는 날 수가 없구나

너는 오라버니  
만나는데  
나는 만날 수가 없구나



파란 하늘위로  
비둘기가 난다  
내 서러움 다리 되어  
내 괴로움 날개 되어  
비둘기가 난다.





## 강의 노랫소리

보이지 않는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뻗어본다

달을 듯말 듯, 이내 달지를 앓는다.

보이지 않지만, 달지도 앓지만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엄마 잃은 아이의 찬란한 노랫소리인 듯,

혹은 꿈을 쫓는 아이의 고된 노랫소리인 듯.

강을 가로질러 들리는 노랫소리

이내 바람을 타고 강을 가로질러 들려온다.

눈물이 고여 만든 강물에는 어느덧

노랫소리의 운율이 흐르고 있었다.

여리디 여린 손 안에 담아 보았다.

손 안에는 민족의 눈물, 아이의 미소가

촉촉이 젖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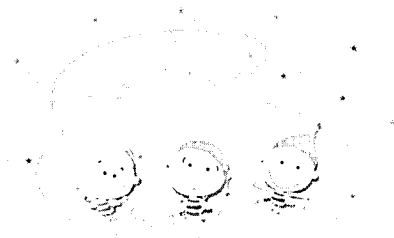


강을 따라 이제는 내가 노래하리라.  
나의 꿈이  
강을 따라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는 강물에 노래를 들려본다.

또 다른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나만의 노랫소리를  
아니, 강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게

오늘도  
나는 강물의 노랫소리를  
들어본다.





## 통일아, 너는 좋겠다

통일아, 너는 좋겠다.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  
모두 모두  
너만 기다리니까

통일아, 너는 좋겠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으니까

통일아, 너는 좋겠다.  
우리나라 지도  
그릴 때 그리던  
답답한 허리띠  
지워도 되니까

통일아 너는 좋겠다.  
전쟁무기 없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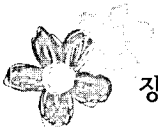


서로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통일아 너는 좋겠다.  
이산가족 만나서  
손에 손 잡고  
독도 여행 할 수 있으니까

통일아 너는 좋겠다.  
남쪽 선수  
북쪽 선수  
한팀 되어  
월드컵의 우승컵  
높이 들 수 있으니까

통일아 너는 좋겠다.  
지구상의 반쪽이는  
하나도 없으니까



## 종이비행기

생살을 도려내던 아픔을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아  
노래가 되고  
말 못할 슬픔은  
깊은 눈물로 멍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란과 뒤엉켜 버리고  
그런 그날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오늘은 이만큼이나 접었습니다.

잊지 못할 짐이 되어 버린  
그날의 흔적을 따라 반 잡고  
삶속에 슬하게 배인  
그리움을 따라 또 한번 잡고

하늘색 바람이 엉키다 풀어지고  
오십 넘은 저 담이 낮아지는 날이면  
이대로 띄어 보내려 합니다.  
저 구름위로



목마른 외침 속으로  
바람마저 숨죽인 그곳으로  
흘린 눈물의 깊이만큼  
기나긴 한숨 소리만큼  
높이,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지금은 기다립니다.  
이대로 훌쩍 떠올랐으면 하지만  
그날을 기다립니다.  
추락하지 않는, 가라앉지 않는  
종이비행기가 되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이토록 오래된 기다림이 무너질까  
불안함에, 쓸쓸함에, 적막함에,



수척해지지만  
흐려오는 희망이 아닌  
점점 뚜렷해지는 희망을 안고 싶어

한번, 다시 또 한번  
오늘도 깊은 슬픔을 접습니다.

햇살 없이도 따뜻하던 그곳으로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눈 맞춤 하지 못하는  
그의 흔적을 밟으려.

서로 보듬은 마음 있던  
그리운 그곳으로  
흐린 하늘 속에서  
희망의 바람이 묻어남을 느끼면서

오늘도 깊은 슬픔을 또 한번 접습니다.



## 귀정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한반도  
시초에 하나였던 한반도  
한민족이 뿌리내린 소박한 땅 한반도

태고에 동쪽나라 생겨날 적에  
작지만 함께이기에  
비추는 햇살에 유난히 빛난다.

비추는 햇살은 한결같건만  
서로의 얼굴을  
증오의 불구덩이에 밀어 넣은  
그날 이후  
차갑게 식어버린 한반도

푸른 하늘 허공에 '함께' 라는 이름이  
너울너울 춤을 춘다.  
붉게 물든 한반도 태고의 눈부심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나의 조국은 하나요  
하나 였지만  
지금은 둘이 되어 갈라진 하나

대지의 만물이 가슴 열고  
부지런히 숨 쉬고 있는 지금  
함께 라는 이름에도  
부끄러운 두 얼굴 맞대고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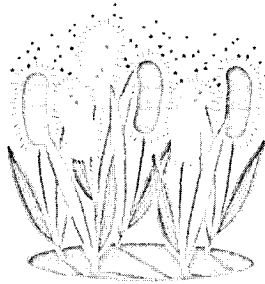
부끄러운 얼굴 뒤에  
화해의 손길이 뻗치는데

검은 이웃은 화해의 가슴 무너뜨리고  
살갓이 찢기는 아픔 속에서도  
상처의 곪을 더욱 깊게 후빈다.

이제 내가 일어나 내 조국의 상처  
한라에서 백두까지 푸른 물살을  
힘차게 가르는 한반도의 모습으로  
드러낼 터이니  
귀일의 날이여



어서 오셔서  
'하나' 라는 이름으로  
아픈 상처 가리는  
단비를 내려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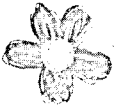




- 쪼개어진 한반도 / 99
- 민족의 씨 / 102
- 그 강 바닥에는 / 104
- 통일이 된 우리나라 / 107
- 꽃이 피기까지 / 109
- 무심한 삼팔선도... / 111
- 통일의 씨앗 / 113
- 갈라진 땅의 희망 / 114
- 향수 / 116

광주광역시





## 쫄개어진 한반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땅, 한반도가  
쫄개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두가 통일이란 글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북이 어우러져  
하나 되는 나라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통일이란 글자에  
합쳐진 한반도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꿈에서나 보았던  
갈라진 이산가족  
슬퍼한 이산가족  
서로 볼 수도 있지만



노래로나 불렀던  
아름다운 자연  
그리워하던 금강산  
함께 볼 수도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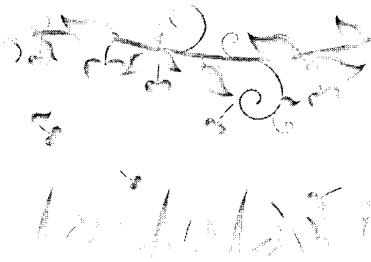
모두가 바라오던  
튼튼한 나라  
튼튼한 강대국  
모두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통일은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통일이란  
서로를 감싸주며  
서로를 안아주며  
서로의 잘잘못을  
용서해 주는



그렇게 모두가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그렇게 모두가  
바라는 통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게  
그런 게 진정한  
통일인거죠.





## 민족의 씨

칼로 살을 베었다.  
칼이 살을 가르고  
우리 마음을 갈랐다.

칼로 피를 베었다.  
칼이 피를 가르고  
민족의 가슴을 갈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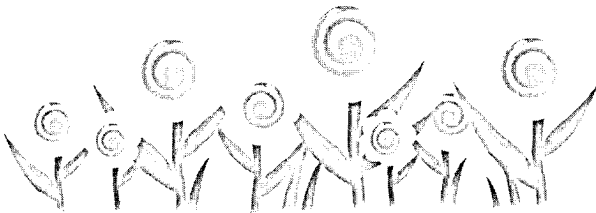
칼로 땅을 베었다.  
칼이 땅을 가르고  
민족의 씨를 갈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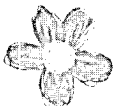
그 비좁은 바위틈 사이서도  
민들레는 피더라.  
그 커다란 그늘 아래서도  
민들레는 피더라.  
그 세디 센 바람 속에서도  
민들레 씨는 날고 날아  
꽃꽂이 살더라.



민들레 씨야 날고 날아  
저쪽 땅에 가주거라.  
민족의 씨여 피고 피어  
꽃꽂이 자라거라.

그 어떤 그늘에도  
그 어떤 바람에도  
무릎 꿇지 않고  
꽃꽂이 견디리라.  
꽃꽂이 자라리라.





## 그 강 바깥에는

도시의 하루는 평화 그 자체  
반세기 전, 그 새벽을 잊은 듯  
고요한 침묵을 안고 있다.

하지만,  
그 강 깊은 바닥엔  
차마 전해지지 못한  
슬픈 이야기가 잠들어 있다.

그 차갑고 시린 강엔  
아직도 아물지 못한  
피로운 상흔이 흐르고 있다.

형님 아우 총부리를 겨누고  
피눈물을 삼켰더랬다.  
보고픈 이를 찾아서  
수도 없이 헤맸더랬다.  
돌아갈 수 없는 길에서  
그렇게 울었더랬다.





꿈에서라도 만나보라  
내 고운 누이여, 그리운 이여  
이 생 다하고 새라도 되면  
돌아갈 수 있으려나  
내 고향 산천, 옛날 그 마을,  
주름진 눈가에 눈물 닦던 노인은  
애달고 안타까운 삶을  
그 강에게 넌지시 전해준다.

그 강은 아는 듯, 모르는 듯,  
넘실대는 듯, 북녘 저 편으로  
이야기를 담고 흐른다.

내 숨이 다하거든  
저 강에 뿌려다오  
혼이라도 남아 그 곳으로 가련다.

노인의 당부를 신고  
강물은 말없이 흘러간다.  
한 맺힌 노인의 마지막이 흘러간다.



그래, 그렇게 흘러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그 슬픔, 아픔, 괴로움은  
강바닥에 떨쳐버리고  
그 차디찬 강바닥에  
깊이 깊이 묻어버리고

오늘도 그 강바닥에는  
슬픈 이야기가 잠겨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그리웠던 형제의 손을 잡고  
걸어 나가야지, 살아 나가야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래, 그렇게….





## 통일이 된 우리나라

통일이 된 우리나라는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북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우리들은 북한말  
북한친구들은 남한말  
서로 따라하면서  
통일의 기쁨을 알게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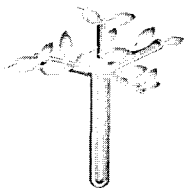
통일이 된 우리나라는  
휴전선도 사라지고  
여행할 곳도 많아질 거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거야  
그땐 통일전망대에서 느끼던  
아쉬움은 저 멀리 사라지고  
통일의 기쁨에 발걸음을  
힘차게 앞으로 내딛을 거야

통일이 된 우리나라는  
가족과 헤어져 사는  
이산가족의 슬픔이 사라질 거야



언제든 보고 싶은 얼굴을 보고  
함께 금강산에 올라  
그 동안의 서러움과 슬픔을  
“통일이 되었다!”  
소리치며 다 날려 보낼 거야  
그 소리에 매아리도 기뻐하겠지?

통일이 된 우리나라는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어  
대통령을 뽑겠지?  
생각만 해도 재밌는 일들로 가득한  
하나 된 우리나라, 하나 된 우리 민족





## 꽃이 피기 까지

반세기 동안  
피지 않는 꽃을  
하염없이 기다린 당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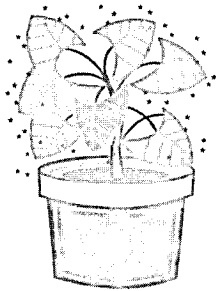
꽃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물 속에 고여 있을 때  
아주 천천히  
그 결실은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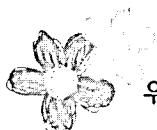
그러나  
하늘로 비상하는  
인간의 마음이  
화합의 열매를 맺으니

남과 북이 만나  
아픔을 던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상생의 꽃을 피운다.



북으로 간다.  
너와 나 이제 북으로 가  
민족의 이웃이 되리라.





## 무심한 심달선도...

시린 새벽  
태양빛으로 섞이어 드는  
하늘과  
육지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 있었다.

모질게 잘린 경계 넘어  
물살을 타고 또 가르며  
끝없이 헤엄치는 고기떼가  
나는 되고 싶었다.

달리지 않는 기차가 녹이 쓴 눈물을 떨구던 곳에서  
나는 공중에 흩어지는 고요한 외침이 되어  
서러움에 젖어 고꾸라지는 날개를  
화알짝 펴 보이고 싶었다.

새순이 돋은 바위 꽃이  
담담히 고개를 쳐든 그곳에선  
하늘도 바다도 본디 하나였기에  
모래알 같은 눈물방울 쏟아내며  
신음 속에 다시 편 날개로  
새벽 찬 이슬에 잉크처럼 번져 흐르던



내 눈물 고이 담아  
닿지 아니하는 그리움으로 흘뿌리겠다.

저것이 슬픔이었다면  
이것은 기쁨이리라  
붉은 푸르름으로  
푸르른 붉음으로  
너와 나 한데 어우러져 서러운 울음을 울 때  
줄줄 흐르다 강둑에 막혀 썩어가던 물줄기  
고여 왔던 강물이  
울음처럼 터져 나올 것이니

나의 동무  
나의 핏줄아!  
우리  
넘실대는 압록 강물  
우리네 합성처럼 터져 나올 때까지  
굳게 건 새끼손가락만은 놓지 말자  
무심한 삼팔선도  
그것마저 끊어 놓진 못했으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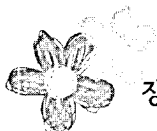
## 통일의 씨앗

한쪽 날개 잃어버려  
시름시름 앓는 조국에게  
혈육의 생이별로  
시퍼렇게 멎든 가슴

든든한 거름되어  
혈육을 보듬는  
통일의 꽃을 피우네

분단의 말뚝 박아  
깊게 패인 6월 강산에  
이유 없이 총 겨누던  
미움 가득한 마음에

한 줄기 희망되어  
통일의 열매 맺히면  
수확의 기쁨처럼  
통일은 다가오네요.



## 갈라진 땅의 희망

총소리가 멈추고  
작은 땅은 두 개로 갈라졌지만  
작은 땅 위에 있는 작은 하늘은  
갈라지지 않았다.

갑자기 나뉘어져 버린 작은 땅들은  
철조망 너머로 서로를 그리워하며  
눈물만 흘렸다.

땅들의 눈물은  
분단이라는 가시덩쿨의  
싹을 틔웠다.

가시덩쿨은 갈라진 땅 전체에 퍼져  
반세기 동안 두 땅을 아프게 했다.

반세기 동안  
가시덩쿨에게 괴롭힘을 당해온 두 땅들은  
여기저기가 찢기고, 패인  
상처투성이가 돼 버렸다.



상처에 아플 때마다  
땅들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직 갈라지지 않은 푸른 하늘  
영원히 갈라지지 않을  
저 깨끗한 하늘...

그렇게 그렇게  
작은 땅 들은 반세기 동안 버텼다.  
아픈 상처도 꺾꺾 참아가며  
언젠간 서로 만날 거라는  
희망을 품은 채...

두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언젠간 만날 거라는 희망과  
그들의 상처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강한 줄처럼  
그들을 이어주며

반세기 전 갈라졌던 두 땅이  
하나가 되고 있다.



## 향수

오늘도 회상에 잠기는 그분

철책선 넘어  
그곳의 흠냄새가 그립다는 그분

부모님과 형제를 버리고  
홀로 고향을 등졌다는 그분

오늘도 그분은  
향수에 젖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신다.

눈물 번진, 수심이 가득한  
그분 얼굴위로 두둥실 구름이 떠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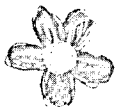
사후 구름이 되고 싶다는 그분  
그곳의 흔적으로 두둥실 떠가고 싶다는 그분

오늘도 그분은 회상에 잠긴다.

- 주인 없는 손가락 한 벌 / 119
- 개성공단 통일냄비 / 121
- 붉은 철조망  
녹아 스러지리라 / 123
- 마음과 실천 / 125
- 유월의 그림 / 127
- 그날이 온다 해도 / 129
- 할아버지의 눈물 / 131
- 할머니의 일기장 / 133
- 통일, 아름다운 함성 / 135

대전광역시





## 주인 없는 숟가락 한 벌

오늘 아침 밥상에도  
어김없이 주인을 기다리는  
숟가락 한 벌

행여나 녹이 슬까  
하루에도 수 없이  
뒹고 또 뒹으시는 우리 할머니

외로움,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깃든  
그 숟가락 한 벌

우리 할머니 피난길에  
놓칠세라 땀나도록  
꼭 쥐고 가져온  
할아버지 숟가락 한 벌

저기 저 새들 날아가는  
북녘에서  
우리 할아버지  
그 숟가락 기다리시겠지.



반백년 간 만나지 못한  
설움을 떨치고  
수저 한 가득 소담하게

만남의 기쁨과 통일의 행복을  
떠먹을 그날을 기다리며  
빛나도록 수저를 닦는다.

온 가족이 큰소리로  
통일의 기쁨을 이야기 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함박웃음을  
한 가득 떠먹을 그날을 기다리며  
빛나도록 수저를 닦는다.





## 개성공단 통일냄비

구부정구부정 할아버지 오셨을 때는  
물방울 앞치마까지 입으신 어머니께서  
조심조심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신다.  
16센티 아담한 양수(兩手)냄비에.

외사촌이 나와 함께 책읽을 때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하하 호호  
허기도 잇을 그런 떠벌떠벌 저녁이라면,  
시뻘건 국물을 침 흘리듯 농쳐도 좋을  
18센티 큼직한 편수(片手)냄비이어야만 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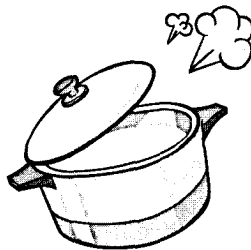
개성에서 대전까지 육로로 올 수 있다면  
콤파스로 찍어보면 부산-대전보다 가까운 것을,  
그것도 무슨 사연이라고 먼 길을 년 배를 타고 돌아와야  
했니?  
포장지 풀자 보이는 냄비의 뚜껑, 기대와 함께 예쁘구나.  
안에 든 것은 개성공단 북한 언니 숨결이어라.

반짝이는 냄비에 비추어져 보이는 내 모습은  
눈도 껌벅 고개도 가우똥 하고 있는데,



북한 언니 이 냄비를 만들면서  
같은 표정 같은 생각하였을 텐가?

냄비야 냄비야 어서 끓어라,  
네가 토하는 뜨거운 입김 가슴에 담백 담고 싶구나.  
입김과 함께하는 끓는 소리는  
언니가 건네는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리운 북한 사투리구나.





## 붉은 철조망 녹아 쓰러지리라

태초의 땅, 순백의 대지에  
눈물로써 금을 긋고  
터져 나오는 오열로 돌아서던  
그 어느,  
서러운 민족이 있었던가.

작은 반도를 갈라낸  
시퍼런 철조망은  
역사의 찌꺼기와  
터져 나온 상처의 고름과  
가슴으로 토해내는 그리운 이의 이름으로

붉게 붉게.  
분단의 반세기마저도  
붉게 물들여.

밥 대신 아들의 이름만 되씹어 삼키던 어매는  
살아도 죽지 못해  
죽어도 살 수밖에  
눈물로 골패인 얼굴을 수그리며.



주름 깊은 소년은  
애꿎는 울음으로  
제어미를 찾다가  
무덤 속에야 북을 향해 눕는다.

그러나  
가시 돋친 철조망이  
타오르는 봄마저 어찌 막을 테냐.

남에서 북으로  
스물스물 번져 오르는  
봄의 기운을,  
어린 제비의 순결한 날개짓을

늙은 소년아. 가여운 어머니야  
이제,  
너희의 상처에도 새 살 돋을지니  
북은 철조망  
녹아 쓰러지리라.



## 마음과 실천

통일의 반은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 상처받은 가슴  
이제는 모두가 보듬어 주어야 해요.

마음이 통일의 반이에요.  
서로 얼싸안고 손잡으면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거예요.

통일의 반은 마음이에요.  
38선이 경계선이 아닌  
평화의 의미로 없어야 해요.

마음이 통일의 반이에요.  
50여 년 긴 세월,  
이젠 아픔이 없어야 해요.

통일의 나머지 반은 실천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 가질 때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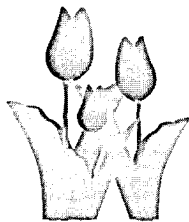
실천은 통일의 반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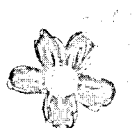


서로가 함께 울고 웃으며  
두 손 맞잡고 헤쳐 나가야 해요.

마음과 실천을 합하면 통일이예요.  
사랑과 정성으로  
차근차근 다가가야 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지요?  
통일은 우리의 과제이니  
따뜻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을...





## 유월의 그림

나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 앞에서  
전쟁의 흔적을  
다시 찾아보는  
엄숙한 유월!  
그 속에서  
통일이란 두 글자는  
씩이 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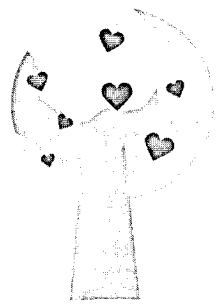
날마다 새로 쓰는  
우리의 역사  
월드컵 본선 진출  
줄기 세포 외교  
세계도 놀라는  
감동의 유월!  
그 속에서  
통일이란 두 글자는  
부쩍 자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꿈



한 마음 한 뜻으로  
통일의 그림을 그려보는 소망의 유월!  
그 속에서  
통일이란 두 글자는  
활짝 웃습니다.

복핵문제의 해결 속에  
언젠가 찾아올 통일  
우리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통일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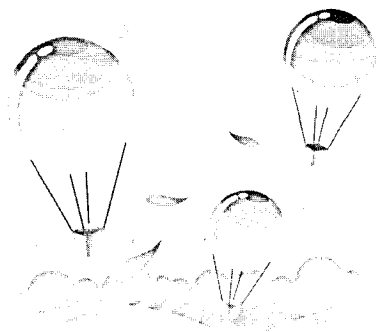
## 그날이 온다 해도

힘없이 처진 얇은 살가죽 위에, 풀어진 실타래처럼 패인 고랑마다 눈물로 얼룩진 한을 담고 반백년을 견뎌낸 외할머니의 지친 작은 발이 황해도 웅진 땅을 밟는 그날이 온다 해도. 아마도 나는 교복 치맛자락을 스치며 지나가는 이모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작은 시골 버스의 덜컹거림에 몸을 맡긴 채 서로의 무릎을 부딪치고 있는 언니를 알아보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외삼촌은 수수죽 냄새 구수히 풍기는 한적한 식당에 마주 앉아 계속 마주치는 눈빛 속에서도 누나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린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 날 이 온다 해도

하지만 외할머니는 시끄러운 장터 한 복판에서 고된 허리 굽혀 나물을 다듬고 있다가도 멀찍이 들려오는 딸의 기침 소릴 알아듣곤 맨발로 달려나가고, 웅진 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썩썩 지나가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도 도로 한 가운데 언뜻 스쳐지나가는 딸의 얼굴을 알아보곤 눈물이 범벅이 되어 달려나가고, 삶의 향기로운 비린내 진동하는 소래 포구 속에서도 딸의 이마를 타고



흐르는 한 방울의 땀 냄새를 알아 맡곤 미친 듯이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간 까맣게 타버린 가슴 속에서 눈물로, 그리움으로 키워온 딸을 한 눈에 알아보곤 자신보다 더 늙어버린 딸을 바스라지게 안으며 통곡할 것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 할아버지의 눈물

명한 모습으로 먼 산을 보시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나의 가슴도 아프다.

6·25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남한으로 넘어오지 못한  
아쉬움과 그리움의 나날.

TV에서 북한 이야기만  
나와도 할아버지의 눈에선  
눈물이 글썽글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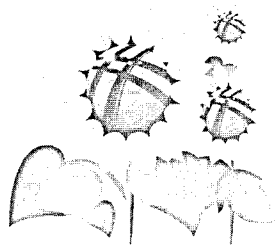
언제쯤 남북이 하나 되어  
서로 손잡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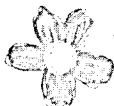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난  
허리는 언제쯤 이어질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날  
노래 부르고 싶다.

할아버지 고향은 평안도라네.  
진달래 꽃 가득한 묘향산에서  
할아버지 손잡고 나들이 가네.





## 할머니의 일기장

삶을 같이한 우리 할머니의 일기장  
빼뜰빼뜰한 글씨체로 쓰여진 일기장에는  
흑백의 가족사진도 끼워져 있다

금방 다시 만날 거란 이별에  
어느덧 엄두내지 못할 긴 세월을  
우리 할머니는 눈물로 지새웠다

한탄과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일기장은  
손때 묻고 바랬어도 빼곡히 채워져 간다  
이산가족이란 아픈 이름을 달고서는

무슨 서글픈 일이 그리도 많은지  
할머니는 자꾸만 일기장을 들여다보시며 우신다  
굵은 눈물가락을 흘리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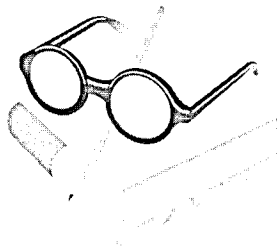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하시며  
먼 이북땅 밟아 보고 싶다고 하시며  
할머니는 일기장을 안고 우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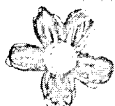
한으로 채워진 상처 난 할머니의 마음을



그리움으로 잠 못든 적 많던 할머니의 마음을  
저 휴전선은 알고 있을까?

오늘도 할머니는 일기장을 안고 잠이 드신다





## 통일, 아름다운 함성

우리 오라비가  
구슬치기를  
그리 잘했재…….

6월 무렵이 되면  
여든 할머니의  
넋두리가 애잔했다.

북어처럼 마른 눈가에는  
어느덧  
천 년의 슬픔이 어리고

나의 가슴에도  
다시 한 켠의  
그리움이 더해지고

50년  
깊게 패인  
이별의 상처



거룩한  
핏줄의 기억은  
칠천만의 염원으로  
뜨겁다.

아아!  
할머니 쓰라린 주름이  
기쁨으로 지는 날

분단국의 서러운 이름,  
끝내  
전설로만 기억되는 날

나  
동포를 부둥켜안고  
눈물겹게 푸르른  
금강산에 올라 외치는  
눈부신 가슴 벅찬 함성

그 함성,  
세계를 울리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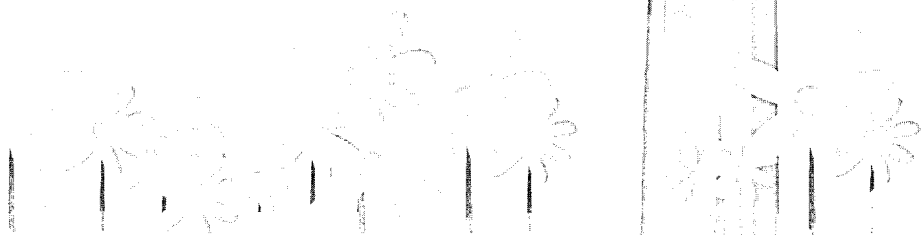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 하나 되는 그날까지 / 141
- 옆집 할머니 / 143
- 의족 / 145
- 백사장에 한반도를  
그려보며... / 147
- 하나에 둘 / 149
- 한 많은 대동강아 / 150
- 통일의 꿈 / 153
- 이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 155
- 백두대간도 지쳐버렸네 / 157

울산광역시







## 하나 되는 그날까지

햇별이 쨍쨍하고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길 위에 살포시 쌓여져  
실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얇은 모래 선 한 개

그 선 한 개를 두고  
여기는 내꺼, 저기는 니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어릿광대가 춤을 춘다.

동네 아이들도  
여기는 우리 땅  
저기는 너네 땅  
우르르르... 와~  
전쟁놀이를 하고

같은 반 아이들도  
여기는 내 책상  
얇은 선을 긋고는  
선 한 개로 나누어진



나라를 보여준다.

하지만 하지만  
전쟁놀이보다도  
“같이 놀러가자, 우린 친구잖아”

책상에 선 곳눈 것보다도  
“괜찮아, 책이 많으면 넘어와도 돼”

이렇게 이렇게  
우리도 선을 지워간다면  
우리가 우리가  
이 선을 모두 지운다면

햇볕이 쨍쨍하고  
바람 한 점 없는 길에도  
곧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살포시 웃으며  
모래 선을 쓸어 가겠지.



## 연집 할머니

옆집 할머니께서는 난리 통에  
아들을 북에 두고 오셨다 합니다.  
강 건너 먼 북녘 땅에.

그 할머니께서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없다 합니다.  
아들 소식 기다리느라.

혹시라도 돌아올까 날마다 할머니는  
삼팔선 같은 대문을 살짝 열어둔다 합니다.  
좁은 길 돌아보고 또 보며.

끼니때면 할머니는 부뚜막에  
쌀밥 한 그릇 꼭꼭 피 담아 두셨다 합니다.  
금방이라도 들어와 찾을까봐.

오늘도 할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북녘하늘을 바라보며  
악몽 같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우레 같은 대포소리가 온 세상을 울리고



뿌연 안개 짙은 새벽에 잃어버리셨다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름만 부르다…,

텔레비전의 이산가족상봉을 볼 때마다  
눈물만 끝없이 흘리셨다 합니다.  
혼자 가슴을 치면서…,

함께 사는 이웃들도 잘 모릅니다.  
할머니의 가슴앓이를  
그 속에 묻힌 그리운 아픔을…,

그러나 할머니는 한 가지  
희망과 소원을 품고 사신다 합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이제는 할머니의 눈시울이  
조금씩이라도 마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철조망이 철통이 되는 그날!





## 의 족

외할아버지는 바다에 사셨다.

외할아버지의  
왼쪽 다리에는  
슬픔이 남아있다.

차디찬 바람을  
가르고 나아간 곳에는  
이웃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차가운 쇠붙이를 겨누고  
매서운 눈으로 외할아버지를  
쏘아보고 있었다.

동포를  
원수보다 증오해야 했던  
분노가  
외할아버지의 다리를  
삼켰다.



차가운 쇠붙이에  
살점이 뜯길 때 외로운 비명소리는  
포탄소리에 묻혀졌다.  
외할아버지는 한쪽 다리 대신  
눈물 같은 구멍이 뚫린 살색 의족을  
가지고 오셨다.

외할아버지는  
바다를 보며 사셨다.

외할아버지 두 눈에는 한없이 깊은 어두움이  
담겨져 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차갑게 남겨진 의족의 구멍에는  
지난날 동포에게  
총 칼을 겨우어야만 했던  
어두운 아픔이 담겨 있었다.



## 백사장에 한반도를 그려보며...

바닷가 한 가운데 앉아서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우리의 한반도를 그려본다.

남과 북을 사이에 두고  
휴전선을 그려 놓고  
우리의 한반도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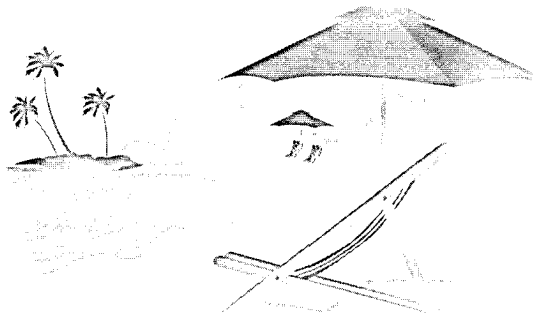
바닷물이 내 컷가에 살며시 다가와  
잘못 그렸다고 말해주며  
밀려온 파도로 그림을 지워준다.

지워진 백사장에 앉아서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우리의 한반도를 그려본다.

남과 북을 사이에 두고  
휴전선을 지워 버리고  
통일의 깃발을 그려 넣어본다.



바닷물이 내 귓가에 살며시 다가와  
잘 그렸다고 말해주며  
파도가 하얗게 웃음 짓는다.





우수상 | 응촌중1 이남윤

## 하나에 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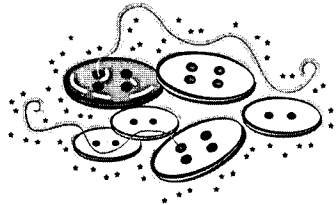
한 하늘에  
두 달과 해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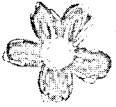
한 어머니에  
두 아들, 딸  
있지만,

꽃 한 송이에  
두 풀잎 있지만,

한 민족에 두 나라  
없어.

한 조국에 두 민족  
없어.





## 한 많은 대동강아...

고향이 황해도 어디시라는  
외할머니께서는 가끔  
옛 노래를 흥얼거리신다

“한 많은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여기까지다  
대동강을 부르짖는 노래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외할머니의 눈물이 되어 그 한을 터뜨리고 만다

뭐가 그리 슬프냐고  
대동강이 그리도 보고 싶냐고  
우리가 물으면  
정작 당신 하시는 말씀은  
그저 모르겠다고...  
노랫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세기다  
우리나라가 찢어진지가



반세기다  
이런 한 맺힌 노래가  
우리 입으로 불리어지다가  
노랫말도 잊혀지도록 지난  
반세기다

우리 땅인데 우리 가족인데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타게 부르짖으며  
슬퍼한다

외할머니께서는 오늘도  
옛 노래를 흥얼거리신다

“한 많은 대동강아,  
변함 없이 잘~ 있느냐...”

오늘도 여기까지다  
노랫말도 잊혀질 만큼 오래된  
그 한 맺힌 노래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외할머니의 주름진 뺨을 흐르는  
서글픈 눈물이 되어  
그 한을 터뜨리고 만다

그리고 고장 난 축음기처럼  
같은 구절만 되풀이된다

“한 많은 대동강아…”







## 통일의 꿈

땅에는  
동글동글 말려진 철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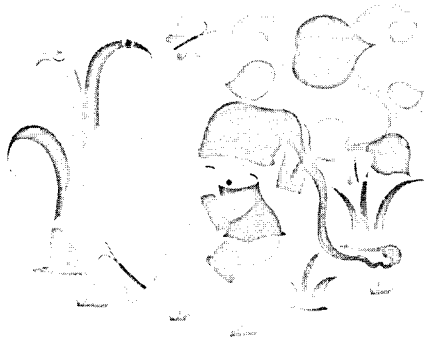
장난삼아 걸쳐놓은 듯한  
가시 철망 위로  
호박넝쿨 자라나  
기를 쓰고 기어오른다.  
자라는 호박 속에  
통일 염원 자랄까?

지도에다  
구불구불 그어 버린 휴전선

실수로  
주욱 그어버린 듯한  
가느다란 선 위로  
녹색물감 짙은 붓이  
자꾸만 덧칠한다.  
녹색 붓질에  
통일 조국 그려진다.



호박넝쿨이 알고  
그림붓이 먼저 아는  
통일의 꿈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  
이루어야 할 때다.





## 이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을 잊지 못해  
가장자리가 닳아빠진 누런 흑백 사진 속을  
뚫어져라 바라보시는 쓸쓸한  
할머니의 뒷모습을  
이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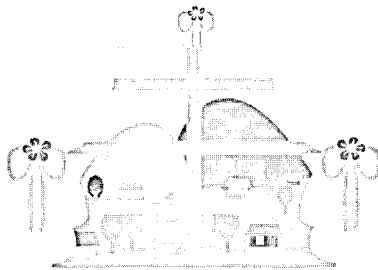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북쪽의 땅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보고  
언제쯤 그날이 올까 기다리다 지친  
할아버지의 처진 어깨를  
이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헤어졌다 다시 만난 가족을 부둥켜안고  
지금까지 서러운 가슴 속에 묻어 두었던  
남모르는 아픔을 쏟아낼 듯  
자꾸만 흐르는 그들의 눈물을  
이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달라진 그들의 언어에  
땅만 갈렸는데



어느새 달라진 그들의 생각에  
새삼스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 백두대간도 지쳐버렸네

지리산에 갔지.  
푸른 나무 틈에  
뽕족한 바위 솟아 있었네.

그곳은 백두대간 끝자락  
백두산에서 씬 없이 달려와  
섬진강에 발 담그고  
쉬고 있었네.

백두대간이 말했지.  
쇠불이와 한숨으로 쌓은  
벽 뚫고 오느라  
고단했다 했네.

그곳에선 사람들이  
괴물처럼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대.  
바람도 그곳에선 멈칫했다지.

누가 감히 백두대간을  
그 우렁찬 산줄기를 막았는지,  
왜 괴물 같은 벽을



허물고 백두대간을 놓아줄 순 없는지.  
백두대간은 대답이 없었네.

지리산에 갔지.  
백두대간이  
부르튼 발 질질 끌며 오고 있었네.



- 통일의 기적소리 / 161
- 종이비행기 / 163
- 戀戀 / 165
- 통일아 어디만큼 왔니? / 167
- 할아버지의 노래 / 169
- 온정리 상추쌈 / 171
- 휴전선이 실이라면 / 173
- 도라산역에서 / 174
- 양파 / 176

경기도







## 통일의 기적소리

나는 허리에 금을 '지-익'  
긋고 사는 호랑이입니다.  
내 허리의 선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서로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의 빛바랜 사진을 보다가  
눈물짓는 모습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1950년 '타-당' 총소리에  
내 허리엔 금이 생겼습니다.  
그때, 생긴 상처보다  
헤어진 가족을 볼 때  
가슴이 더 아파옵니다.

내 머리에서 꼬리까진 기차가 있는데  
허리에서 못 만나게 끊겼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내 허리의 금을 지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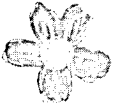


상처 난 허리선 넘어 산천만 봐도  
눈물이 눈에 고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내 허리의 선을 허물고,  
끊긴 기찻길을 만들려 합니다.

이제 제 허리엔  
고통을 주는 선 대신  
행복을 주는 기찻길이 생길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난 기다릴 것입니다.  
내가 그리던 그때,  
단일기를 만들어  
거리마다 휘날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내 허리의 상처를 덮고  
이어진 기찻길로 울려 퍼질  
통일의 기적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 종이비행기

바람아 바람아  
소원 하나만 들어줘

이 하얀 종이비행기 하나  
저기 저 북쪽으로 실어다 줘

눈물로 얼룩지고 깊은 상처 생긴  
할아버지의 세월을 담아  
한 번 접고

반평생 만나지 못한 가족  
빛 바랜 사진 한 장만 쓸어 담는  
할머니의 가슴으로  
두 번 접은  
이 하얀 종이비행기 하나  
저기 저 북쪽으로 실어다 줘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 달음에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전쟁이 남긴 아픈 흔적을 담아

높다란 철조망보다 더 높고  
붉게 번진 동족의 피,  
그와 반대의 색을 가진 푸름 속에  
새 하얀 꼬리를 길게 뻗어줘

난 믿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슬픔이  
희망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날개 하나만으로는 날 수 없는  
종이비행기를 펼치면  
하나로 이어진 종이라는 것을



## 戀戀

전망대에 올랐다.

유려한 산의 능선이며  
햇빛이 튼 강줄기야  
한걸음에 그곳에 닿을 듯  
차마 마음까진  
철조망의 가시도 드리우질 못하는구나.

살아 있으면,  
이 하늘 아래 모질게  
살아 있기만 할양이면,  
언젠간 만날 수 있겠지….

그런 부질없다 치붙이 못할 기대가  
꼭 삼켜진 오백원 동전 몇 개만큼만  
눈앞에 보여졌다 사라진다.

야속하지,  
참으로 야속하기도 하지.  
누구에겐지 모를 원망과….



만나고 싶소,  
참말로 만나고 싶소,  
눈물로 되뇌고 돌아서면 눈에 비치는

유려한 산의 능선이며  
햇빛이 튀는 강줄기야  
한걸음에 그곳에 닿을 듯  
차마 마음까진  
철조망의 가시도 드리우질 못하는구나.





우수상 | 동부초5 김소연

## 통일아 어디만큼 왔니?

통일아!  
통일아!  
어디만큼 왔니?

철조망 뚫고  
앞산 너머까지 왔니?

혹시  
다리 아프다고  
쉬고 있지는 않니?

내 작은  
두 손으로  
시원하게 안마해 줄게  
힘내서 성큼성큼 오렴

내 손이 부족하면  
남과 북  
어린이 모두의 손으로  
널 부축해 줄게  
힘내서 성큼성큼 오렴



우리 모두의  
마음 담아  
너에게 편지도 쓰고  
노래도 불러줄게

힘들어도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에게 다가 오렴

활짝 핀  
통일 꽃  
한 아름 들고서

남과 북 얼싸 안고  
널 맞을 마음  
벌써부터  
두근두근





## 할아버지의 노래

금강산자락 어드메  
작은 시골 마을이  
고향이라는  
울 할아버지,  
“그리운 금강산”  
구슬픈 노래 가락으로  
아침을 여신다.

산만큼의 세월이  
온몸에 내려앉아  
입다가 벗어놓은 옷처럼  
허리 굽고 주름진  
울 할아버지

가냘픈 몸 어디서  
그 힘이 나는 걸까,  
할아버지의 노래엔  
하나도 주름지지 않은  
힘이  
들어있다.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리움이  
야무지게 뭉쳐져 있다.

고향으로 마냥 내닫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울 할아버지 속엔 청정히  
살아 있나 보다.  
그것이 울 할아버지를 숨 쉬게 하는  
힘이 되어주나 보다.

고향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울 할아버지 노래는 끝나지 않으리.

고단한 하루를  
울 할아버지, 오늘도  
노래 한 가락으로  
내려놓으신다.  
그리움도 함께...



## 온정리(溫井里) 상추쌈

한 쌈에 담은 것은  
고봉밥 한 순갈과 장뿐이 아니었나.

쌈싸래한 향미(香味)에 코끝이 아린 것은  
해금강 둘러 자락마다 뺏어 내린  
저네들의 푸성귀 같은 뿌리 때문인가.

땀손으로 일구었다는,  
뿌린 씨가 흙을 먹고  
눈물로 목을 축여  
검게 타 말라버린 그네들 몸 위로  
푸른, 푸른 것을 싹 틔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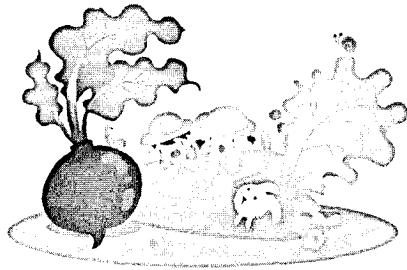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은  
씻내 나는 금전  
가을걷이까지의 부루가 아니다.

잘린 허리춤 부여잡고 선  
강단 쉰 땅  
아픔을 달고 힘줄로 솟은



저들의 반쪽짜리 바람에 여기,  
멀리 잃을 뻔했던 남은 절반의 혼이 한 쌈에 담겨 있다

※ 부루 - 상추의 북한식 명칭





## 휴전선이 실이라면

휴전선이 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가위로

'툭'

잘라서

남한, 북한 길이 나겠지?

휴전선이

빨강, 파랑, 초록 실이라면

색색으로 곱게 엮어서

너와 나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

휴전선이 실이라면

우리 같이 통일의 옷감을 짤 수도 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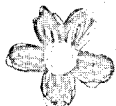
휴전선이 실이라면

가위로 자르자.

남한, 북한 가위로

'툭'

휴전선을 자르자.



## 도라산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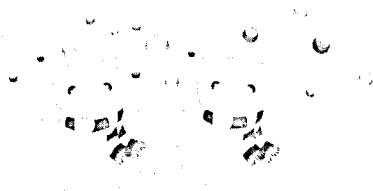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55번지  
무심한 비무장지대 바라보며  
고즈넉이 내려앉은 쓸쓸한 역사  
고향 잃은 사람들의 그리움 안고  
시름 많은 한반도가 토해내는  
육십 여년 서러움 품은 채  
홀로 외로운 도라산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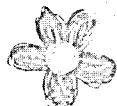
서울 64km  
평양 205km  
흙먼지 이는 역사 한 모퉁이에서  
그래도 이정표 하나  
초여름 햇살에 반짝인다  
철따라 빛 고운 연산홍, 코스모스  
흐드러지게 피어나면  
그 외로움 위로할 수 있을까

허허로운 임진강 기슭을 지나  
녹슨 철조망을 뚫고  
이름 없는 풀꽃 사이로



지뢰와 도라지꽃 함께 살아가는  
비무장지대 훌쩍 뛰어넘어  
철마는 달리고 싶다  
가슴 부푼 상상에 젖지 않은 날  
단 하루라도 있었을까  
대륙의 대동맥 불끈 솟아오를 그날을  
하루라도 꿈꾸지 않은 날 없으리  
미완의 통일역,  
도라산역에서





## 양파

신촌 역, 느티나무 아래  
양파 까는 여자 줄고 있다  
대가리 찢어진 소쿠리안 웅크린 양파들  
시퍼런 젓꼭지를 우물거린다

콘크리트 딱딱한 바람  
젓꼭지를 흔들어대면  
시멘트 냄새 밀어내고  
흠여지는 따가운 알갱이  
여자의 눈꺼풀로 내려앉아  
검뽕검뽕 아린 눈물을 채우고 있다

뿌리 한가닥 한가닥  
북에 놓고 온 자식새끼  
주렁주렁 젓에 매달리고  
그녀의 마른세월을  
벗겨 낸다

반들반들한 양파 팔려 가면  
꼬깃꼬깃 멍이든 세종대왕  
굳은 미소 새겨진 배춧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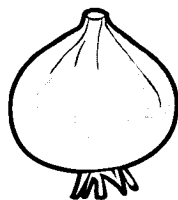




한장 한장 모여들고  
소금기 가득한 양손  
하나 둘 셋 절여가며  
나래, 고향갈 때 써야디  
되새김질 하는 북의 아낙

오늘따라 벗겨도 벗겨도  
벗겨지지 않는 양파  
따가운 알갱이 자꾸만  
눈꺼풀위로 내려앉고

북녘에서 흘러온 바람  
양파뿌리 한 가닥씩 기워내고 있다





- 연필아 지우개야 / 181
- 누이 / 183
- 이 늙은이 좀 봐 주시오 / 185
- 우리는 하나 / 187
- 나비에게 / 188
- 날아서 만나 / 190
- 한 형제, 한 집에서 / 193
- 통일의 사슬 / 196
- 임진강 / 197

강원도





## 연필아 지우개야

쓱쓱쓱쓱 아무거나  
잘 지우는 지우개야

우리나라 지도 한가운데  
그려져 있는 휴전선을 지워주렴

지우개야 지우개야  
이산가족 못 만나  
슬퍼하는 사람들  
눈물을 지워주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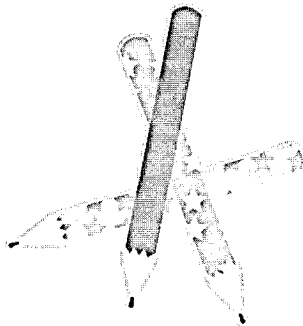
아무거나 잘 써내는  
연필아  
휴전선이 지워진  
우리나라 새 지도를  
아름답게 그려주렴

연필아 연필아  
남에서 북에서  
통일을 기다리며



걱정하는 얼굴에  
해맑은 웃음꽃을 그려주렴

지우개야 연필아  
지웠다가 그리면서  
남과 북  
통일된 모습을  
예쁘게 예쁘게 보여주렴





## 누이

누이야, 무얼 하나.  
난 너무도 서글퍼  
어둔 밤 별을 헤아리고  
있어요.

누이야, 어디 있나.  
호롱불 같은 달빛아래  
나의 손 꼭 잡고  
눈물을 머금던 그 누이야.

한 평생 나를 위해  
할미꽃 같은 몸으로  
하루를 살아가던  
누이야.

난 오직 누이를 위하여  
밤을 맞이하고,  
저 멀리 분단의 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그 손을  
다시 맞잡을 수 있는지...  
빛 바랜 사진 한 장에 의지하는  
내가 그림지도 않나, 누이야.

밟을 수도 없는 저 허망스런  
남의 땅을 난 언제 건너  
누이 곁에 바람처럼 스며가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지...

누이야, 나는 오늘도 바라온다.  
칼바람이 분단선 끊고,  
붉은 바람 잠이 들어  
어서 누이 품을 수 있기를...

그리도 만나고 싶었던  
나의 고향, 나의 누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나 오늘밤도 바라온다.





## 이 늙은이 좀 봐주시오

보고 싶은 그 얼굴이  
눈감아도 보이는데,  
듣고 싶은 그 얼굴이  
귀 멀어도 들리는데,

눈 뜨면  
오죽하겠소,  
귀 트이면  
오죽하겠소.

먼발치도 아니구려,  
눈앞에 있소이다.  
볼 수 없어 눈이 멀고,  
들을 수 없어 귀가 머는,

이 늙은이 좀 봐주시오.  
제발 내 눈 좀, 내 귀 좀 봐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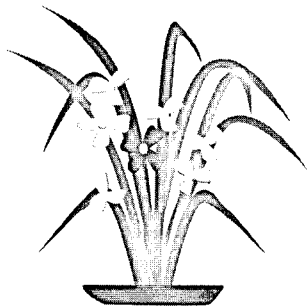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내 앞의  
그 모습만 보게, 들을 수 있게



누구든  
나 좀 도와 주시오.

죽기 전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오.

이 늙은이의  
소원 좀 들어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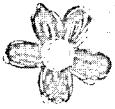
##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될 민족  
나중엔 콩처럼  
한 콩각지 안에서  
용기종기 커 갈 거라고

우리는 통일될 민족  
나중엔 감자처럼  
한 뿌리 위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자라고  
땅 속 감자알처럼 번성할 거라고

우리는 뭉쳐질 민족  
나중엔 찰흙처럼  
위대한 작품되어  
우뚝 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모두의 바람으로  
기어이 통일을 이루고  
전 세계에 하나 된 힘을  
펼칠 거라고



## 나비에게

이쪽 하늘 자유로이  
저쪽 하늘 자유로이  
나비야!  
나는 네가 부럽다  
우리는 네가 부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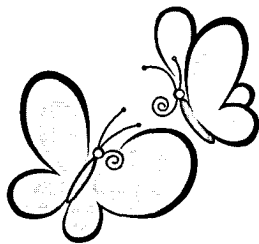
우리에게 모두 갈라져  
마음대로 밟지 못하고  
마음껏 느끼지 못하는  
땅과 바다와 하늘  
그곳을 향해 날고 있는  
네가 참 부럽구나

너의 그 자유가 우리 것일 수 있다면  
분단을 넘어, 단절을 넘어  
우리도 그렇게 날아볼 수 있으련만  
같은 땅 위를 살며  
우리도 같은 하늘과 바다를  
이야기할 수 있으련만



지금쯤 우리 땅 그곳에도  
꽃향기가 온 천지를 휘감았을 텐데  
너의 날갯짓으로 전해지는 그 향기만을  
지금 우리는 맡고 있구나

나비야!  
이제 그곳에 가면  
꽃향기 감싸 안고 기다려주렴  
우리 곧 그곳에 갈 것을 약속 할테니





## 날아서 만나

한 밥상 나누던 가족들  
장난만 좋아하던 동무들  
앞마당 귀여운 누렁이도  
행복했다.  
가난도 배고픔도 함께 라서  
행복했다.

지금도 혼자는 아니지만은  
내 심장은 깨어졌구나.

너 먼저 가라  
너 먼저 가라  
나는 곧 뒤따르마  
그렇겐 못하겠습네  
살아도 같이...  
할 말 다 못 이르고  
찢어진 내 핏줄들

눈 감으면 나타나고  
눈을 떠도 나타난다.  
한 방울



그리움의 눈물은 허망한 꿈  
그리움은 쌓이고  
넘을 순 없고

그립다.  
그립다.  
가슴 저리게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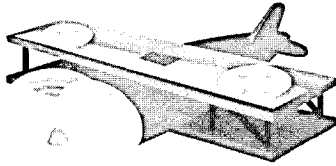
무엇을 해도 가슴 속에 남는  
이 무언가는

지금은  
이승에선 만나지 못하는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여...

그리운 그대  
저승길 가거들랑  
다음 생엔 새가 되어  
날아올라, 날아올라  
무너졌을 그 벽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마주 앉아



한 없이 웃기만 하자.  
헤어지지 말자.







## 한 형제, 한 집에서

우리는 한 민족  
우리는 한 겨레  
우리는 한 형제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희망.

함께 했던 땅을 가르고,  
높은 울타리를 쳤네.

갑갑한 울타리 너머로  
답답한 울타리 너머로

싸우면서 10년,  
토라져서 10년,  
화를 내며 10년,  
욕을 하며 10년,  
미워하며 10년.



이제는 굶고 가난한 형제를 보며,  
이제는 늙고 외로운 형제를 보며,

속이 상해 1년,  
애가 타서 1년,  
안타까워 1년,  
한숨 쉬며 1년,  
눈물지며 1년.

이제,  
우리 집 울타리를 좀 낮추자.  
울타리 옆에는 아릅드리 과일나무를 심자.

가지가 울타리 너머까지 뻗어 가면,  
형제에게 그늘도 주고,  
열매도 같이 먹을 수 있겠지.

허리만큼 낮아진 울타리 너머로  
형제와 눈을 마주치면  
활짝 웃을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다음에는  
그 울타리마저 없애버리고  
더 크고 멋진 집을 지어  
한 형제  
한 집에서  
함께 살 수 있겠지.





## 통일의 사슬

1950년 6월 25일  
끝과 끝을 당기는 민족의 사슬,  
맹렬한 포탄 속에서  
끊기고 말았네.

“챙…채챙… 툽!  
안타깝게 끊긴 쇠사슬 끝엔  
팽팽한 긴장이 맞닿고  
휴전선이란 이름으로 선하나 그어 놓았네.

민족의 피로 얼룩진 산하에  
잘려나간 쇠사슬 고리.

잘 제련된 연결고리 하나 만들어  
희망의 사슬 엮어보게나.

그 사슬이 통일의 사슬로 얽혀지도록  
꼭 꼭 묶어두게나.



## 임진강

아무리 세상이 슬프다 하거늘  
그대만치 어디든  
눈물 흘릴 곳 없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 몸이 편치 않거늘  
그대만치 어디든  
편히 누울 곳 없지 아니하고  
여지껏 첩첩산중 가운데 붉은 선은  
그곳에 뼈를 묻은  
민족의 영혼과 함께  
역사를 가로질러 서 있던가  
그립던 나의 님은 아니 오시는데  
난 기다립니다.

어제 밤은 임진강 포구에  
앉아 계신가요  
달 위에 구름이 뜬 것이  
님의 차림과 같아  
어느새 낮이 익습니다  
오늘밤은 임진강 나루에서  
무엇을 읊고 계신가요  
풀잎 안에 귀뚜라미가 우는 것이



님의 노랫소리 같아  
유난히 밝게 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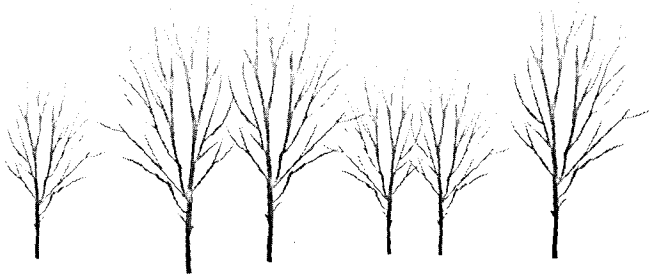
세월을 멀리하고  
어찌 그곳에 가계신가요  
육십 해 전 가시는 날  
아카시아 꽃  
한 아름 안겨주시고는  
돌아오지 않거늘  
하늘 위에 별이 되어  
나를 밝혀 주시겠다 하셨는데  
생사를 모르고서 어찌 별을  
우러러 볼 수 있겠습니까.

피어오른 연기 말에  
검은 심장이 오그라들어  
민족은 갈라지고  
나의 남은 떠나가고

하염없는 눈물은  
이제 임진강 끝머리에 묻어 두고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  
말벗이나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립던 나의 님은 아니 오시는데  
나는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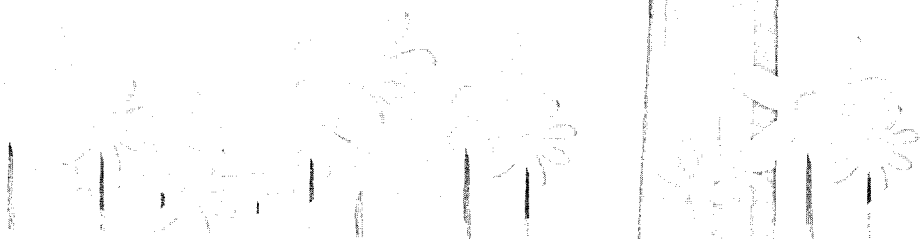






- 힘을 키워 도와요 / 203
- 죄인의 조국은 / 205
- 휴전선 문답 / 207
- 빨강이와 파랑이 / 209
- 마음을 녹이는 용광로 / 211
- 그날의 눈물 / 213
- 서로 만나서 힘 모아서 / 215
- 20년 후, 통일 20주년. / 216
- 그를 위해 / 218

충청북도







## 힘을 키워 도와요

북쪽의 친구들은  
불쌍해요

못 먹어 비쩍 말라  
기운이 없나 봐요

우리는 북한을 위해  
많은 것을 보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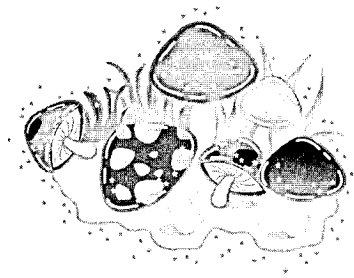
쌀과 밀가루  
비료와 소똥 등을

먹을 게 없어  
손 벌리더니  
우리를 속이고  
핵개발을 했대요

전쟁만 좋아하는  
얄미운 공산당들  
쥐어박고 싶지만



못 먹어 빼빼마른  
북한친구가 불쌍해  
우린 커다란 힘을  
쭈욱 키워  
그들을 도와줘야 해요





## 죄인의 조국은

한반도의 칼자국은  
무참히 남아있구나  
금수강산의 핏자국은  
서럽게 남아있구나  
깊게 패인 상처속의  
눈물 젖은 아우성은  
끝없이 갈대밭을  
휘젓는구나.

아사달 아사녀의 애달품도  
이보다 더 했을까  
심청의 고통도  
이보다 더 했을까  
뱃속까지 값아 먹힌  
우리의 과거는  
철창 속에 갇혀서  
미래를 꿈꾼다.

황혼과 어슬막  
색동다리와 무지개는  
손잡고 하나 되어



들로 나뉘어진 무궁화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시계바늘 굴림 속에서.  
뽑아내자 뽑아내자  
땅속 깊이 꽃혀있는  
가시덩굴 감옥 문을

일어나자 일어나자  
호랑이의 용맹함을  
하나 가득 가슴에 안고.

갈림길을 걷고 있는  
남북의 죄인들아  
뽑아내서 일어나서  
하나의 조국을  
이루어보자.



## 휴전선 문답

아이 잃은 아버가 느낀  
막막의 장벽보다 더 높은 그대여  
길 잃은 아이가 느낀  
세상의 장성보다 더 너른 그대여

태어난 지 환갑이 다되었건만  
왜 아직도 그리 든든하게 서있는가?  
이젠 귀향한 노선비의 한가함을  
맛볼 때가 아니던가?

아직 환갑뿐이 아니 되었는가?  
광활한 만리장성 삼천년 살고 있는데  
나라고 그리 못할 건가?

그대가 있어  
눈물로 고향 그리고  
설움으로 부모 그리고  
지척인 평양 꽃잎조차 따지 못한  
그네들의 마음을 아는가?



우습도다.

만물의 영장이라 떠들던 인간들이  
산노루도 가고, 산토끼도 가고,  
산새도 넘어가던 나를  
얼음 위 소 눈으로 쳐다만 보는구나

말이 차가운 그대여  
언 짚신처럼 야속한 그대여  
인간이기에 당신을 넘지 못한  
우리에게  
그것밖에 할 말이 없던가?

정녕 당신들은 '눈' 으로밖에  
볼 수 없는가?  
당신들이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대들 자신이네.





## 빨강이와 파랑이

오래 전에 두 친구가  
커다란 싸움을 했어요.  
친한 친구끼리  
충칼을 휘둘렀지요.

싸움은 끝났지만  
둘은 화해하지 않았어요.  
휴전선이라는 금을 긋고  
빨강이, 파랑이라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지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빨강이와 파랑이는  
싸운 것을 후회했어요.  
둘은 화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빨강이는 공산주의  
파랑이는 자유주의  
서로 생각이 달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빨강이와 파랑이는  
다시 손잡고 싶어해요.  
지금은 어렵지만  
훗날엔 다시 하나가 되겠죠.

언어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생활도 달라요.

다른 친구들의 이간질에  
서로를 미워할 때도 있었지만  
갈라졌다는 아픔과  
못 만난다는 슬픔을  
극복해 나가며  
함께 할 때를 기다려요.



## 마음을 녹이는 용광로

누군가 나에게  
커다란 선물 주겠노라 말하면  
나는  
부탁해야지  
마음을 녹이는 용광로

마음을 녹이는 용광로에  
화해의 물약을 넘치도록 가득  
용서의 가루를 뿌리고  
사랑의 막대로  
눌지 않게 잘 저어주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른 물약이  
끓어 넘쳐 산줄기를 따라 흘러 흘러  
호랑이의 핏줄에 까지  
온몸 이곳저곳 싹뿔줄에서도  
뜨거운 피가 되어

본래 우리는  
한민족이었기에



철조망 넘어 두만강 핏줄에도  
흘러 흘러가

딱지 앓고 흉터 남은 마음에  
빨간약이 되고  
분단의 아픔에 슬픔이 벽차오르면

쇠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을  
서로 시기하며 미워한 마음을  
만날 수 없던 슬픔과 아픔까지  
스르르 녹인다.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해하는 날  
우리의 손으로  
철조망이 녹는 날



## 그날의 눈물

이념의 날개에 서서  
친구의 심장에 총을 겨누고  
어미의 눈동자에 칼을 겨누며  
피눈물을 흘리던 그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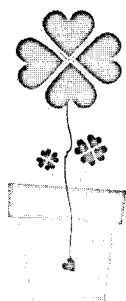
빗발치는 총성과 포성 한가운데서  
사랑하던 누이동생 잃고  
뛰어놀던 고향산천 등 돌리며  
가슴앓이의 몸부림치던 그대여

호랑이의 허리를 쇠사슬로 감싸고  
쇠불이로 넘쳐나는 한반도 속에서  
그대의 피눈물은 멈추었는가  
그대의 가슴앓이는 끝이 났는가

이제 그대의 피눈물은  
이제 그대의 가슴앓이는  
한줄기 빗방울로  
한줄기 바람으로  
그대의 온몸에서 씻겨져야 한다  
그대의 마음에서 재가 되어야 한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아래서  
하얗게 발가벗은 두 몸이  
한강과 대동강이 휘몰아치는 그곳에서  
덩실덩실 어깨 춤추며  
우렁찬 폭포수 소리로 둘러싸이는 그날  
그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리라.





## 서로 만나서 힘 모아서

아빠와 엄마가 서로 만나서  
사랑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만나서  
즐겁게 노래하며 박자 맞춰요.

흰 건반 검정 건반 서로 힘모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지요.

왼발과 오른발 서로 힘모아  
천릿길도 힘차게 걸어가지요.

남쪽 친구 북쪽 친구 서로 힘모아  
아름다운 이 강산 가꾸어 가요.

모두 만나 힘모아  
우리나라 허리띠 힘껏 풀어요.  
포동포동 이 나라 살찌워 가요.



## 20년 후, 통일 20주년

혹시 너니?  
저기 앞에 가고 있는  
뒷모습의 그림자가

잡힐 듯, 말 듯  
쉬지 않고 달린  
오십 여년은  
마치 아무리 나아가도  
만나지 않는 평행선처럼...

들리지 않니?  
나의 함성이 우리의 함성이  
한민족의 울부짖음이

지난 과거의 총소리가  
지난 전쟁의 핏자국이  
아직 가슴에 남아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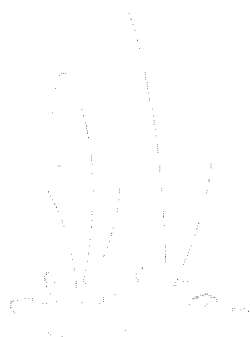
답답한 가슴 속 칼자국일랑  
낙동강 맑은 물에 씻겨 보내고  
저 비둘기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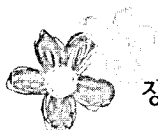




가슴 따뜻한 동포애를 애기하자  
50여 년간 풀려있던 밧줄을 다시 묶자

사랑하자  
우리 사랑하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만나자  
우리 손잡고 맘껏 웃으며  
하나 된 조국을 이끌어 가자.





## 그를 위해

그대는 북으로 북으로  
치다르려는 푸른 호랑이  
그러나 어느 포수의 덧이기에  
산맥은 성긴 쇠줄에 얽혀  
애처로운 심정만을  
품에 안고 사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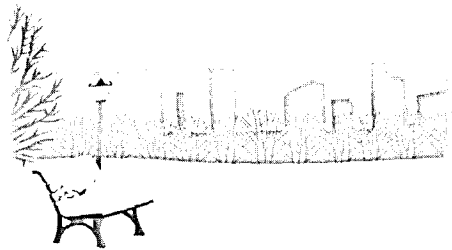
벗어나려 벗어나려  
몸부림을 쳐 보아도  
남는 것은 잘게 찢긴  
검붉은 상흔과  
명울져 핏빛으로 흐르는  
하얀 그리움 뿐  
도무지 새살은 돋으려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리듯  
그를 살려내야 할 때  
한 감자의 녹슨 쇠줄을



만 갑자의 푸른 솔로  
묻어버려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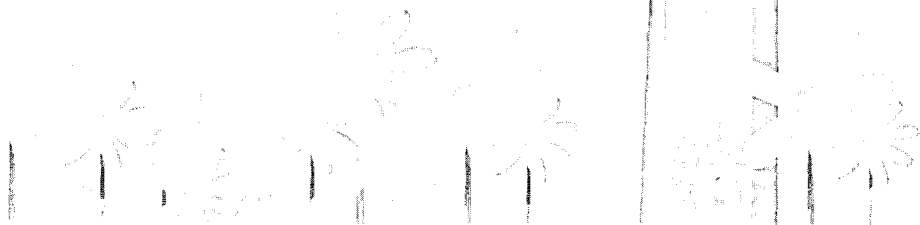
반가움에 눈물짓던  
두 뺨의 온기로  
경진 년에 굳게 맞잡던  
두 손의 열망으로  
하얀 그리움만  
대지에 남겨둔 채  
그렇게 그렇게  
묻어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 통일의 자전거 / 223
- 흥시가 붉게 익을 때쯤이면 / 225
- 유월은 있노라 / 226
- 웃음의 꽃으로  
남북을 잇는다. / 230
- 이제는 느끼고 싶습니다. / 232
- 행복한 기다림 / 234
- 통일 놀이마당을 가리며 / 236
- 나무 / 238
- 함께 가야할 길 / 241

충청남도







## 통일의 자전거

쌩쌩 씨이잉  
시원한 바람 맞으며  
신나게 달리는 내 자전거

힘껏 페달을 밟으면  
하나, 둘, 셋 장단 맞추어  
두 바퀴는 하나 되어서 잘도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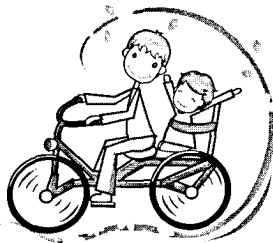
한 줄의 체인 속에서  
한마음이 되어야  
앞으로 앞으로 잘 나가는 것을  
앞바퀴와 뒷바퀴는  
이해하면서 힘을 낸다.

한 핏줄 한 뜻으로 이어진 우리 민족도  
내 자전거처럼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두 바퀴가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통일을 향해  
열심히 열심히  
페달을 힘껏 밟으며  
앞을 향해 나아가자

하나로 뭉쳐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평화의 꿈 이룰 때까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통일의 자전거 페달을  
힘껏 구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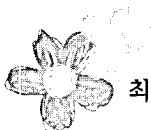


## 홍시가 붉게 익을 때쯤이면

홍시가 붉게 익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생일상을 차립니다  
주인 잃은 수저 한 벌에  
기름진 밥과 따듯한 국 한 그릇  
할아버지 자리엔 50년 설움이 뒤채이고

할머니의 하염없는 눈물이  
골 깊은 길을 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젊은 아버지를 닮은 사진 속 할아버지

가을이면  
잠 못 주무시는 할머니 몸살에  
홍시만 붉게 익어갑니다



## 유월은 있노라

1.

유-월은  
자유가 설렌 파랑새의  
넓게 핀 날개였다

높이 빛나는 오천의 계절답게  
서슴없이 넓어만 갔던 유-월

그를 반기었던  
굽이굽이  
녹청색 삼천리

우리의 얼굴에서 샘솟는 푸르름이  
유-월의 날개를 적시우던 곳에

처음 어디 경계가 있었으랴.

너는 매년 어린 짐승으로 돌아와서  
근심 없는 하늘을 물고  
날개의 고향을 날았었더라  
잘려진 이남을 안고



빼, 앵. 패, 앵. 도는  
유월이  
홀로 왔다고 쉽게 느껴진 것은

다시금 휘젓고 싶은  
향수였을까  
.....

## 2.

여보!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내 말도 들어보오  
어느 날,  
철에 엉키인 사람들의 적개심을 보게 되면  
나는  
이렇게 되뇌었소

“그곳에도  
유월은 있을 것이오.”

눈멀어 허우적대던 칼창을 피해  
가슴 깊이 움크렸던 양금이



유월 따라 떠밀려온 물결에  
덧없이 녹아가고

“그 곳에도  
유월은 있을 것ियो.”

이내 흠냄새로 스미는데,  
우리네 유골 같은 하이얀 그리움이  
유월의 넓은 팔에 매달려  
가벼운 듯 높이 떠 쪽빛으로 선명하고

“그곳에도  
유월은 있을 것ि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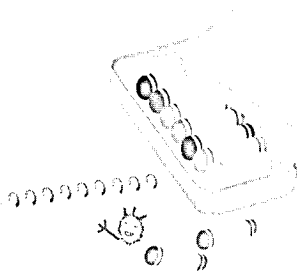
이내 북녘으로 흔들리는데,  
시린 내 두 손만 붙잡던 기도가  
유월의 햇빛에 풀려 마침내  
수줍게 내민 어린 손가락으로 보이더이다.

“그곳에도,  
그곳에도,  
유월은 있어.”



상처도 원망도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는  
핏빛이 아닌 가슴으로 붉은  
유월,

“유월이 있을 것ियो.”





## 웃음의 꽃으로 남북을 잇는다

내가 많이 보고 싶어서 왔니?  
북녘 산골짜기에 꼭꼭 숨어있던  
북한산 고사리  
엄마랑 시장 갔을 때 생긱 웃었다.

너도 울었니?  
너무 많이 보고 싶었다고  
너도 깔깔 웃었니?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하다고

엄마가 무쳐주신 맛있는 고사리  
산골짜기마다 뛰어노는 북한친구 생각난다.

엄마가 사 오신 통일냄비는  
개성에서 만들어진 남북한 통일 작품

구수한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이면  
이산가족 모여서  
하하하하 호호호호  
식사하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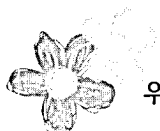


남북한 어린이들이 통일 조국에서  
축포 터뜨리는 소리가 난다.

남쪽에서 이사 간  
못자리용 비닐은  
아기손톱만한 통일 벼씨를  
비바람 막아주는  
따뜻한 가슴

통일 벼씨 자라서 통일 모 되고  
거치른 북녘 땅에  
깊게 뿌리 내려  
노릇노릇 통일이삭 맺으면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아픔을 벗고  
155마일 휴전선 철조망 대신  
웃음의 꽃으로 남북을 잇는다.



## 이제는 느끼고 싶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주인 없는 녹슨 철모를,  
그 녹슨 철모에 50년 동안 서린 한을.

그냥 들어만 보았습니다.  
38선 앞에서 울부짖는 이산가족의 울음을,  
그 울음에 흘러보낸 긴 그리움을.

그냥 느껴만 보았습니다.  
조국 분단이라는 슬픈 현실을,  
그 현실에 드리워진 외로운 아픔을.

잘 몰랐었습니다.  
50년 전의 그 푸른 유월에의 전쟁을,  
그 전쟁에서 묻어난 가슴 깊이 새겨진 진한 상처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50년 전 한민족이 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이별을,  
그 이별에서 생긴 분단의 고통을.

이제는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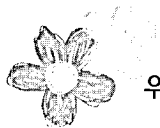
비무장지대에서 함께 뛰어노는 순수한 아이들을,  
그 아이들에서 피어나는 통일의 꽃을.

이제는 듣고 싶습니다.  
외할머니가 금강산에 올라 밝게 웃는 웃음소리를,  
그 웃음에서 함께 부르는 통일의 노래를.

이제는 느끼고 싶습니다.  
진정한 한민족이 만들어가는 사랑을,  
그 사랑에서 다시 달리는 철마의 희망을.

이제는 꿈꾸고 싶습니다.  
북한친구와 손잡고 백두산 정상에  
하나 되어 오르는 모습을,  
아름다운 한반도에 수줍은 분홍빛 무궁화로  
함께 물들이는 모습을.

그 백두산 자락에서 살아 숨 쉬는 오천년의 역사를,  
그 무궁화 앞에서 다시 트이는 한반도의 숨결을,  
이제는 가슴깊이 느끼고 싶습니다.



## 행복한 기다림

당신은 알고 있나요?  
눈으로 보면 한없이 가깝고  
마음으로 보면 한없이 멀고 먼 땅.  
그 곳으로 끌리는 내 마음을  
자석처럼 끌려가는 내 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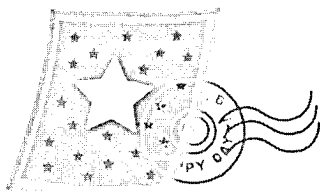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런 내 마음속에  
항상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비가 되어 쏟아져 내린다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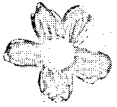
하지만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당신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리란 믿음에  
희망을 싣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내 마음속에 당신은 항상  
설렘을 느끼게 하는 기쁨의 존재로  
행복을 머금은 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머지않아  
행복을 이끌고  
기쁜 발걸음으로  
찾아와 줄 당신이기에  
이렇게 조용히  
당신을  
당신을 웃으며 기다립니다.





## 통일 놀이마당을 그리며

5월의 푸른 들판이 파아란 하늘을 이고 섰다  
흰 구름은 꿈을 담아 강물처럼 흐르고  
운동장은 설렘과 즐거움을 담았다.

굴렁쇠를 굴러라 비석치기 해야지  
투호놀이 하려무나 제기차기 해야지  
오늘은 어린이날 놀이마당 열렸다.

하하하 함박웃음 노랫소리 드높고  
송글송글 땀방울이 기쁨 되어 쏟아진다  
그래도 텅 빈 가슴 허전한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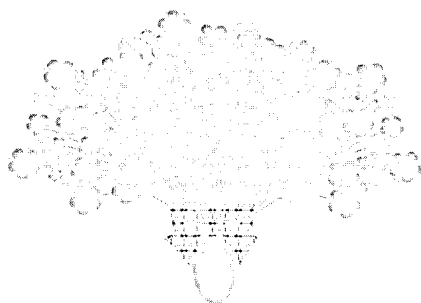
운동장의 반쪽은 비워둘 걸 그랬나  
북한 친구 오라고 비워둘 걸 그랬나  
어느새 가슴 가득 고이는 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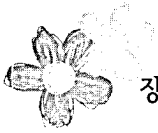
그리움이 붓물처럼 넘쳐흐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것은  
그 무엇인가?



하이얀 도화지 위에서  
친구와 두 손 잡고  
민속놀이 한마당 놀아 볼까나?

그 마음 모두 담아 그림을 그린다  
'통일 놀이마당' 그림을 그린다  
그림이 기도되어 통일을 부른다.





## 나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동안  
나뭇가지들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나뭇가지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난 시원한 북쪽으로 더 자라고 싶어.”  
“난 따뜻한 남쪽으로 더 자랄 거야.”  
서로 싸우던 가지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길게, 점점 더 길게  
자랐습니다.

나무는  
가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양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갈라집니다.  
오천년의 세월이,  
오천년의 사랑과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갈라집니다.  
멀리서  
새하얀 반달이 슬프게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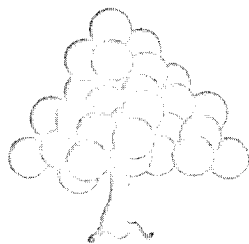
달빛이 말합니다.  
“너흰 하나야.  
둘이 되면 살 수 없어.”  
하나, 하나, 하나…  
달빛의 말은 쓰러져 가는 나무에게  
한줄기 희망이 됩니다.

가지들은 힘을 합쳐 몸을 일으켰습니다.  
갈라진 몸을 붙이고  
싱그러운 연둣빛 새싹을 피웁니다.



가운데 새로 돋은 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갈라진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 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 함께 가야 할 길

갈까 말까 머뭇거리다  
그가 올까 멈춰서고  
맹혹한 추위 속에  
그의 발걸음 소리 생각하니  
봄 햇볕에 가시 얼음처럼  
마음은 녹아드네.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는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었지만  
눈이 그치고 새싹이 돌아날 때까지  
우리는 만나지 못했다네.

가녀린 어린 마음에  
그를 잡지 못하고  
한 없이 오랜 세월 쓴 눈물 삼키며  
그가 오길 기다리기에 지쳤다네.

오랜 시간이 주는 고통의 무게 속에서  
문득 앞의 황량한 들판을 보니  
오, 이젠 알 수 있으리라.



그가 떠나간 것은 나의 기다림을 위한 것이고  
그가 오지 않은 것은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이제 함께 저 거친 들판을 갈고  
씨뿌리고 거두는 날을 만나야 하리.  
그 추수하는 햇빛 가득한 길을  
함께 걸어가야만 하리.



- 하나 되리라 / 245
- 희망의 지우개 / 249
- 오늘, 우리는  
서로 눈을 맞추리 / 252
- 구룡폭포 앞에서 / 255
- 해금강가에서 / 257
- 필연 / 259
- 통일의 그날 / 261
- 내 친구 민들레 / 263
- 하나되는 마음, 하나되는 겨레 / 266

전라북도





## 하나 되리라

나라 한 가운데  
그어진 선 하나가  
내 가족, 내 친구들을  
슬프게 합니다.

무정한 세월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갈갈히 찢어놓습니다.

지는 해처럼 붉어지기만 하는  
그들의 가슴 속 멍들이,  
목 놓아 불러보는  
가족들의 이름이,  
고향을 그리는  
애달픈 노랫소리가

굽이굽이 흘러서  
시간 속에 묻혀집니다.

그들의 가슴에  
얼룩진 눈물을,



북녘 땅을 가로막는  
차가운 철조망을

지울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우리 다시 만날 그날.  
넘지 못한 한많은 경계선  
수많은 이들의 기원 속에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통일될 그날이...

저 높이 저 멀리  
날아가는 철새들아  
너희들은 근심 걱정 없겠구나!

양지바른 언덕 아래  
민들레 홀씨들  
제 마음대로 훑날리는데.



따스한 봄날의 개나리꽃  
이쪽저쪽 편 없이  
화려함을 자랑하건만

한 민족 한 겨레  
두 쪽으로 갈라서  
네 편 내 편  
편 가르고 사는지...

두 발로 넘을 수 없는 땅이라면  
철새 되어 날아가렵니다.  
민들레 홀씨 되어  
바람에 실려 가렵니다.  
노오란 개나리 꽃씨 속에 숨어  
그리운 고향아래 뿌리 내리렵니다.

부모 형제 편 가르고  
마음까지 편 가르느  
50년 세월, 그 곳곳함을 자랑하는  
매정한 철조망아!



높이높이 솟아올라  
하늘까지 막더라도  
모두가 하나 되어  
부르는 통일 노래  
온 세상 울려 퍼질 그날  
통일은 오리라!

남과 북 하나 되어  
한 목소리 울려 퍼질 때  
한 겨레 될 때  
우리는 하나 되리라.

우리는 하나 되리라!







## 희망의 지우개

삐뚤삐뚤 잘못 쓴 글씨  
영성하게 잘못 그린 그림

그것이 바로  
남북을 갈라놓은  
한 서린 휴전선

이산가족 어언 50년  
피눈물과 그리움  
이제 상처마저 말라붙어  
흉물스럽게 아문 듯 보이는 저 금

단숨에 깨끗하게  
거대한 폭포 이룬 마음의 눈물로  
겨래의 지우개질로 지우는 그날!

짜꿍과 다투다가 이를 악물며 새긴 금도  
삐뚤삐뚤 보기 싫은 연필 금도  
하루 이틀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지울 때는 터뜨리는 함박 웃음  
남북을 가로막는 휴전선



깨끗하게 지우고  
이산가족의 그리움도 없애줄  
지우개는 어디 있나.

남한 짝꿍 북한 짝꿍  
함박 웃음 터뜨리는 그날까지

통일의 지우개질

남북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누군가 그어 버린 휴전선  
한겨레 한민족을 떼어 놓은 금을  
깨끗이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어디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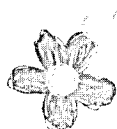
내게 그 지우개 주어진다면  
이산가족의 한 맺힌 휴전선의 금  
짝꿍끼리 아옹다옹 책상의 금  
밤을 지새우면서  
깨끗이 지울 거야.



친구야.  
어서 오렴  
함께 지우자꾸나.

나는 북녘 가슴에...,  
너는 남녘 마음에...





## 오늘, 우리는 서로 눈을 맞추리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내 안에 꿈틀대는 작은 소망  
걸림돌이 무엇이나

그날을 그린다.  
큰 돌에 막혀 두 갈래로 갈라진  
우리,  
이제 하나로  
오직 하나로 합쳐질  
그날을.

수십 년  
서로 그리며 흘리던 눈물은  
말라버린 지 이미 오래오,  
사랑이라 부르라  
한(恨)이라 부르라  
서글픈 희망이라 부르라

그때 우리  
손을 맞잡고 있지 않았다.



부드럽고 곱던 그대  
까칠한 나무토막으로 변했어도…,  
이제  
서로 따스한 눈길을 마주쳐야지.

꿈은 이루어지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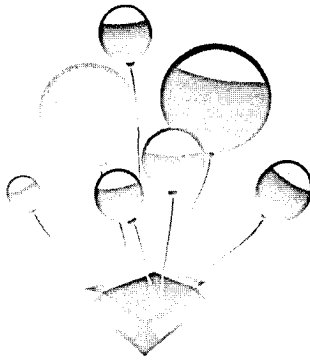
한민족 길이 이어온 숨결  
한데 모아  
마음을 열자.

무너진 가슴  
끊어진 민족의 등줄기 태백산맥  
하나로 이어  
움츠린 호랑이  
하늘로 용솨음치는 순간이어라.

서로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돌고 또 돌아  
태평양 대서양 건너  
같은 뿌리 한 겨레 마음 합하여



널리널리 퍼뜨리라.  
온 누리에 알리라.





## 구룡폭포 앞에서

지난 여름  
금강산에 올랐다.  
뜨거운  
태양아래  
송알송알  
맺히는 땀방울  
한 걸음 한 걸음은  
천근 만근.

땀 흘리며  
헉헉대다  
바라보니  
그토록 보고싶던  
아홉 마리  
용이 놀던  
구룡폭포.

시원한 물줄기  
쏟아져 내리는  
구룡폭포에서  
생각한다.



구룡폭포 오르는  
힘든 걸음처럼  
통일도 그렇게  
힘든 것일까?

금강산 구룡폭포  
흐르고 흘러  
설악산 비룡폭포와  
동해에서  
부등켜안고  
하나가 되듯

남과 북  
우리겨레  
뜨거운 손  
맞잡고  
하나되어  
덩실덩실  
춤추었으면...





## 해금강기에서

금강산 줄기 따라 고요히 흐르는 너는  
한 마리 처량한 소쩍새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민족의 한 많은 혼담아 구슬피 우는  
한 마리 서글픈 영혼

말없이 굽이굽이 흐르는 너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  
아픈 역사 후회하며 빠져리게 우는  
민족의 눈물 말없이 닦아주던  
한 줄기 인자한 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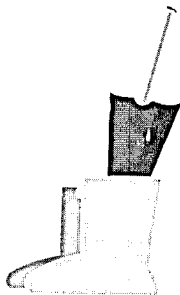
저녁노을 찬란히 받으며 발갱게 물든 너는  
한 송이 붉디붉은 꽃  
민족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서  
지친 몸으로도 한반도 따스히 감싸 안았던  
한 송이 고요한 정열

작은 물줄기 모여 큰 강 이루듯  
바위에 부딪히는 아픔 딛고  
웅덩이에 고이는 좌절 딛고



남과 북의 물줄기 하나 되어  
더 큰 바다로 나아가야 할 때

해금강에서 물줄기 만나는 날  
금강산 팔 벌려 너울너울 춤추겠고  
너는  
온 민족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물결 하나 심어 놓으리라.





## 필연

백두대간의 정기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탄생한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민족의 피를 이어  
자랑스러운 한글로써 배우고,  
단군아래 역사도 같다.  
우리는, 형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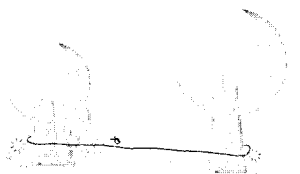
그 옛날,  
신라의 진흥왕도  
고려의 태조도  
이루지 못한 민족의 통일을  
우리는 이루어 내리라.

수증기와 얼음같이,  
있을 곳을 달리 하여  
비록,  
지금은 남이겠지만



시간이 흘러  
수증기가 응결되고  
얼음이 녹으면,  
그때는 한 곳에 섞이어  
흐르자, 민족의 눈물로

흐르고 흘러서 저 먼 곳  
대해로 나가, 세계를 휘감아  
한의 울음보를 터트리듯이,  
민족의 저력을 발산하자.  
툭 터진 가슴의 멍을 지워내자.





## 통일의 그날

철조망에 걸린  
그리움 하나.

손 뻗으면  
바로 저긴데  
마음은 너무 멀구나.

남 북 정상  
굳은 악수 속에  
더욱 궁금한  
북한 친구들의 모습.

친구들아!  
긴 기다림과  
설렘 속에 돌아난  
통일의 싹에

우리 모두  
이제  
화합의 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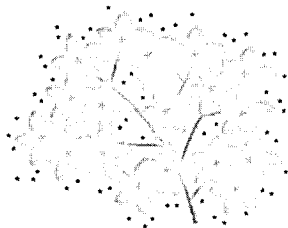


평화의 거름주고  
마음도 주자.

친구야, 친구야!  
철조망에 걸린 그리움  
걸어내는 날.

두 손 꼭 잡고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  
힘껏 외쳐보자.

‘우리는 하나’ 라고….





## 내 친구 민들레

노오란 치마 자락 펼치며  
휘이휘이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은  
삼팔선에 처량히 몸을 던져 본다.

민들레야!  
아! 나의 민들레 친구야  
부디 그들에게 전해 다오.

가슴으로 만나고픈  
가슴으로 그리워하는  
그들이기에  
피눈물 흘리며  
천년을 기다려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들이기에

꽃같은 청춘  
육십 여 그 긴 세월이  
홀쩍 가져갔어도

핏줄마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 다오.

발 못 닿을  
저 떠나면 땅!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너는  
우리 할머니의 소망을 품고  
북녘 땅에 맞닿을 수 있잖니?

가슴 속  
안고 있는 그 뼈저린 한  
이제는, 이제는 내려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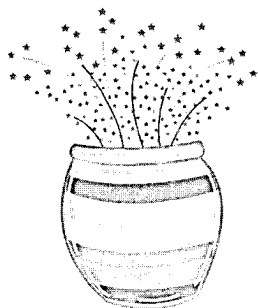
간절한 기다림 속에  
민들레 희망의 전령사인 너는  
우리 마음 잘 알잖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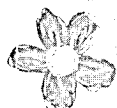
네 곁에서 환하게 웃고픈  
손에 손잡고, 백두에 오를  
그날만을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민족의 한인 꼬나풀을





매듭지어 나갈 때가 되었잖니?  
민들레 친구야!





##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는 겨레

입술이 답답해라  
형제들의 이름 소리

푸른 하늘 걸어가며  
논길 따라 거닐던 꿈

풀잎 위  
앉은 풀벌레  
살며시 날아간다.

너와 내가 이별한 지  
지천명의 나이 지나고

속 좁은  
나일로 커서  
화해도 모르는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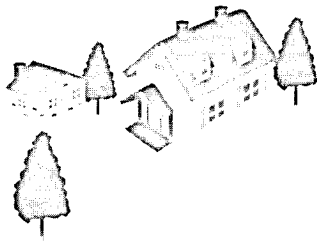
강물이 불어날수록  
네 이름이 묻힌다.



네 마음 빌려다가  
깨끗이 단장하고

한없이  
쌓였던 원망  
이제나 풀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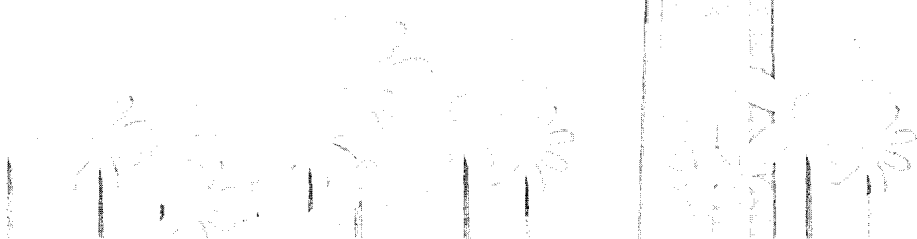
다시금  
다짐하고  
내 마음을 닦는다.





- 평양으로 소풍을... / 271
- 그곳에 사람이 살던 걸요 / 272
- 꽃의 결실 / 275
- 그리운 통일 / 277
- 절규와 소망 / 279
- 손을 마주 잡으면 / 280
- 종이비행기 / 283
- 통일을 기리며 / 285
- 선(線) / 287

전라남도







## 평양으로 소풍을...

우리 함께 평양으로  
소풍을 가는 날

평양친구 손잡고  
구경을 해요.

보성 김밥  
평양 김밥  
끌고루 먹지요.

휴전선이 없어진 이곳에  
공원이 생기겠지요

뛰놀던 동물도 구경하고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하고

다음에는 평양친구들도  
우리 보성을 구경하러 오겠지요.



## 그곳에 사람이 살던 걸요

선을 넘어  
감춰져 있는 그곳으로  
금지된 그곳으로 들어갈 때,

손에는 땀을 쥐고  
조금의 긴장과  
또 조금의 궁금증을 안고 갔었죠.

하지만 가보니  
다 사람이 살던걸요.

그들은 웃음도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웬걸요  
버스타고 지나가며 손흔들면  
어색하게나마 인사하며 지어준 미소  
너무나 따스한 우리 민족의 미소인걸요.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웬걸요.  
“꼬마가 너무 귀여워서 주는거야.”





동생 손에 사과 한 알 쥐어주던 안내양 언니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 똑같던걸요.

그곳은 아주 다른 세계인 줄 알았죠.  
하지만 웬걸요  
아무리 50년 갈라져 있어도  
함께 살아온 반만년이 더 길어  
우리는 너무나 닮았던 걸요.

단 10분을 얘기했어도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헤어질 때 되면 오랜 친구마냥  
섬섬한 마음에 자꾸만 돌아보고.

“다음에 다시 올 거지?”  
기약없이 했던 그 약속  
언제쯤이나 지킬 수 있을지.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남아야 하는 걸까요.



- 너무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어.  
- 말도 안 통하던 걸  
-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아닌데, 정말로 아닌데  
내가 정말 봤는데.

원래 하나였던 우리  
다시 하나되기가  
왜 이리 힘든걸까요.  
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평계가 이리도 많은 걸까요.





## 꽃의 결실

아침이 밝아 와도  
여전히 돌아가는 시계 바늘을  
막을 수 없는 건  
우리들의 끝없는 욕심이 아닐까

흘러온 세월을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마도  
지울 수 없는 역사가 아닐까

울분 터져라 외친 평화도  
고요 속에 잠들어버린  
갈망이거늘

분신의 반쪽을 잃어도  
마음만은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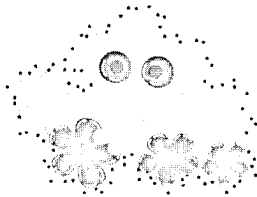
서로 같은 뜻을 이루고 있나니  
무얼 그리 두려워하고  
무얼 그리 망설이는가



한걸음 다가서면  
한걸음 물러서는  
줄다리기 실랑이를 하나

함께 나눈 고통이 씨앗 되어  
열매를 맺듯  
우리의 앞날은  
활짝 핀 꽃이 되리라

이해를 밑거름 삼아  
용기 있는 자만이 누리는  
꽃의 결실을 맺으리라





## 그리운 통일

열두색 크레파스로  
북한 친구 그리다가  
새록새록 잠이 들었네.

하얀 얼굴 까만 눈동자  
우리말을 할 줄 아는 그 친구는  
나와 꼭 닮았어요.

그 친구 소원은  
맛있는 것 먹고 싶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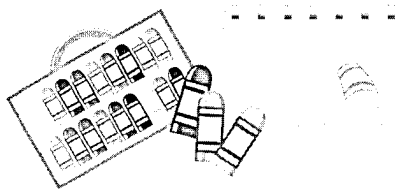
친구야  
우리 두 손 모아  
어서 어서 통일이 오라고  
기도하자.

통일이 되면  
너와 함께 손을 맞잡고  
책상에 나란히 앉아서  
공부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자꾸나!



한라에서 백두까지  
알록달록 고운 무지개 다리를 놓고  
아름다운 우리강산  
구경도 하자꾸나.

잠에서 깨어보니  
도화지 안의 친구 얼굴  
방실방실 웃고 있네요.





## 절규와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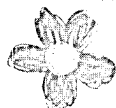
우리네 아버이는 체험으로 기억하고  
우리들은 머릿속에 상상으로 기억한다.  
친구백 오십년에 있었던 민족사의 비극을.

아버이 마음속에 서려 있는 묵은 한(恨)은  
철없는 우리들의 눈시울을 붉게 한다.  
한반도 휘감아 돌던 피범벅된 메아리

세월의 흐름도 그 고통을 못 지우고  
통곡의 절규 소리 우리 귓전 맴돌지만  
다시는 겪지 말잔 다짐, 갈수록 더해지네.

그 곱던 얼굴에 새겨지는 주름들은  
부모 형제 그리움에 지쳐서 남긴 자국  
그리움 한 많은 세월 언제나 끝나려나.

한 울타리 한 집에서 이제는 살아보자  
한 밥상에 밥을 먹고 한 이불에 잠을 자자  
저 밝은 태양 아래서 어깨동무 춤을 추자.



## 손을 마주 잡으면

바다 건너 불어오는  
찬바람에 손을 뺄으면  
붉은 아픔이 묻어난다  
한서린 원망이 울린다

섬뜩하고 건조한 바람,  
이기심과 냉기를 머금은  
이 바람으로 우리는  
날아올라서는 안된다

고운 두 손을 마주 잡고  
하이얀 베옷을 입은 채로  
희망으로 날아 올라야 한다

마주 잡은 손을 놓지 말아다오  
세찬 폭풍우를 만나거든  
부등켜안고서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한 영혼을 흐르게 해다오

유월의 쓰라림을 다독이며  
신뢰 가득한 눈을 응시할 때





한반도에는 동맥혈이 용솨음친다

큰 소리로 웃어보아라  
부끄럽거든 미소라도 지어라  
시퍼런 한으로 찢겨진 반세기의  
무표정한 탈은 벗어던져라

벗어던지되 기억하라  
그것은 우리의 핏빛 과거요  
수많은 이산의 눈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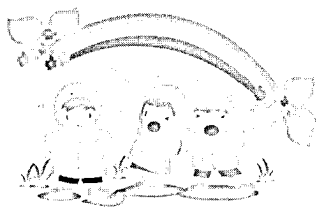
녹슨 철조망과 검붉은 군모는  
승고한 영혼들의 원성이다  
기억하며 맞이하라 찬란한 아침을

하나된 푸른 창공을 휘돌아  
아래를 내려다 보라  
세차게 뻗어나갈 새싹들이  
머지않을 봄을 준비한다



봄이오면 뒤덮이리라  
붉고 황량한 휴전의 사막이  
푸른 생명의 강 굽이치는  
화해와 협력의 들판으로

한라 백두의 정기와  
동해의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세계를 누빌 호랑이가  
하나 된 한반도에서 도약한다





## 종이비행기

새하얀 종이 하나  
우리가 통일을 꿈꾸듯이  
뭔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휴전선 너머 먼 이북 땅  
내 대신 보고 와 달라고  
휴전선 너머 먼 이북 땅  
통일바라는 내 마음 전해 주라고

작은 소망 담아  
종이비행기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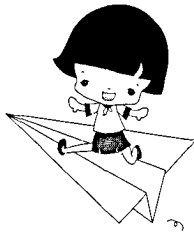
그리곤 아버지같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통일의 꿈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힘껏  
날립니다.

종이비행기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  
저 멀리  
산 너머로 사라져 갑니다.



저 멀리 이북 땅에  
도착하여 내 꿈을  
전해주기 바라며  
저 멀리 이북 땅에  
북한 친구 보고 싶은 내 마음  
전해주기 바라며

이제 보이지도 않는  
종이비행기를 생각하며  
산을 내려옵니다.





## 통일을 기리며

한쪽 날개를 잃어버려  
날아오르려 날아오르려  
땅바닥을 딛고 일어서려  
안간힘을 쓰지만  
한 날개만 퍼덕퍼덕  
그리워 그리워  
양날개를 달고 날던  
산과 들아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군의 꿈을 안고  
반만년을 이어온  
배달겨레여!

찢겨진 날개로  
반백년이 흘렀구나  
토막 난 시간  
토막 난 행복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네  
우리 겨레 모두 힘을 모아



한쪽의 날개를 찾아야해

울 듯 울 듯 오지 않는

통일이여.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네

우리가 날개를 찾아 달아야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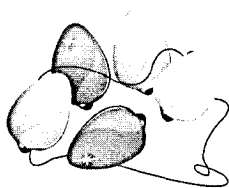
온 겨레의 피땀으로 날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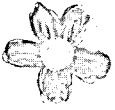
엮어

아시아의 등불이 되어

세계로 날아가는 찬란한

나비 한 쌍을 이뤄야 한다네.





## 선(線)

한 가운데 그어진  
휴전선  
그 선 하나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저녁노을처럼  
붉어지는 그들의  
눈시울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아프다.

따스한 봄날  
지저귀는 새소리  
만발하는 진달래  
남북이 따로 없건만

그 선 하나로  
한 민족 두 국가가 되어  
부모형제 편 가르고  
마음까지 편 가른다.



있는 힘껏 불러보지만  
대답 없는 저 건너편  
그리고  
쌓여만 가는 그리움

언제쯤 가볼까  
언제쯤 만나볼까  
그리움에 찌든 이 마음  
한숨에 묻혀 나온다

지우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은  
그러나 지워지지도  
끊기지도 않는  
질긴 그 선

하지만 다가 올 것이다.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이  
우리 함께 할 그날이



- 통일의 꿈 / 291
- 시계의 분침은  
수억 번이나 돌았다 / 293
- 통일을 기다리며 / 296
- 통일이 되면 / 298
- 작은 집 / 300
- 아름답고 행복한 꿈 / 303
- 우리는 하나다 / 306
- 듣고 싶어라 / 308
- 우리의 하늘 / 309

경상북도





## 통일의 꿈

신나게 달리던  
기차 한 대가  
나의 등에서 멈춰버렸다.  
오늘도  
한 곳만 바라보며 주저앉는다.

언제까지 떨어져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한 곳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

남북 사이에 길게 누운  
나는  
웅크린 기차를 다독이며  
함께 꿈을 꾸다.

남북한이 통일되어  
나의 등 위를  
신나게 끝없이  
달려보는 것이다.  
구름을 도화지 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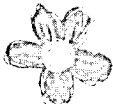


바람을 붓 삼아  
파란 하늘을  
푸른 들판을  
마음껏 달려보는  
우리들의 꿈을 그려본다.

기차 안에서는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되어  
창 밖의 푸른 들판 향해  
손 흔들고  
파란 하늘 보며 노래 부른다.

꿈꾸던 기차는  
어느새  
신의주 넘어 만주 벌판을  
거침없이 달린다.





## 시계의 분침은 수억 번이나 돌았다

시계의 분침은 수억 번이나 돌았다.

아카시아 향 코를 찌를 때  
가시도 살갓 찌르는 아카시아  
숲 속 헤매는 동안  
할머니의 주름은  
닳아버린 고무신처럼  
그리움의 눈물은  
흐르는 강물처럼  
그저 돌아앉아 슬퍼하며  
세월만 따르다 보니  
많이 다르구나  
많이 변했구나  
그래도  
그들의 시계도  
우리의 시계도  
같은 시간 속에 살며

시계의 분침은 수억 번이나 돌았다.

봄 되면 진달래 지천으로 피고



가을이면 천지에 단풍 꽃 피는  
같은 계절 속에 살았으니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결코  
하나 아닌 게 없다.

시계의 분침은 수억 번이나 돌았다.

물길 따라 가기만 하면  
보일 것 같은데,  
구름 따라 가기만 하면  
닿을 것 같은데.  
그깟 선 하나에

시계의 분침은 수억 번이나 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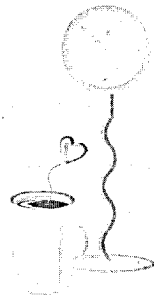
들을 각기 하나로  
나눈 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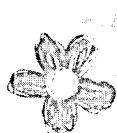


하나가 둘로 갈리고  
호랑이는 허리 잘려 누웠다.

시계의 분침은 수억 번이나 돌았다.

시계의 분침이 아무리 수억 번 돌아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다.





## 통일을 기다리며

한반도는 육지여서  
휴전선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지만,  
바다는 철책선도 없는데,  
무엇으로 나누었나?

저만치 손닿을 듯 보이는  
지척의 장산곶을,  
바닷새는 자유로이 왕래하는데,  
고기들도 제멋대로 헤엄치는데,  
사람들은 가지 못하고,  
고깃배도 갈 수가 없네

파도도 하얗게 질린  
긴장만이 가득한 곳.  
연평 해전(海戰)의 포연(砲煙)이  
아직도 기억 속에 자욱한  
핏빛 유월.  
기억의 단편들이 되살아나면  
분단의 상처를 되새겨 보는  
여기는 서해 5도.





하지만

이젠 뜨거운 몸짓으로 일어날 때,  
해안에 부딪히는 세찬 파도처럼  
힘찬 몸짓으로  
오랜 분단의 역사를 뛰어넘고,

언젠가는 서해에도

바닷길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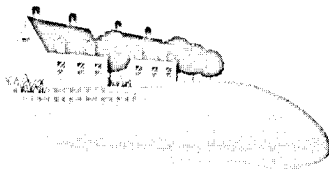
마음속 녹슨 철책선 걷어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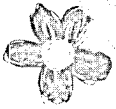
바다에도 경의선 이어

저기 장산곶까지

저기 북녘땅까지

단숨에 달려가 손잡을 날 오리라.





##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  
가깝고도 멀었던  
그리운 백두산을  
단숨에 갈 수 있대요.

통일이 되면  
하나 된 우리나라를  
친구와 같이 마음껏  
뛰어보고 싶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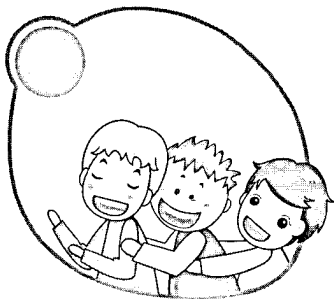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의  
슬픈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생긴대요.

통일이 되면  
남한친구 북한친구  
같이 열심히 공부해  
세계에서 제일가는



통일된 우리나라  
함께 만들지요.

통일이 되면  
남한친구 북한친구  
손잡고 외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라고.





## 작은 집

작은 집 한 채가  
많은 빌딩들 사이에  
작고 흰 들꽃처럼  
예쁘게 서 있었지.

그 집엔 정말 사이좋은  
형제가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  
예쁜 집 속에서.

그러던 어느 날,  
싸움이 난 거야.  
서로 마음속 깊이 상처를 남기고  
각자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았지.

방문도, 창문도, 마음도  
꼭꼭 잠그고  
그 방 속에서  
서로를 원망만 했지.



며칠, 몇 개월,  
여러 해가 지나도  
나올 줄을 몰랐어.  
집이 점점 낡아져 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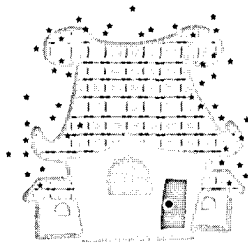
어느 날 창가에 파랑새가  
단힌 창을 두드리며 울었지.  
예쁜 그 새를 보며  
형제는 깨달았지.

너무 바보 같았다는 걸.  
조금만 양보했으며 될 걸 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문고리를 조금씩 열고.

조금씩 발을 내딛어 봤어.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열어 봤어.  
그 사이 얼굴도 말투도 변해 버렸지만,  
한 핏줄 형제라는 건 그대로였지.



눈물로 아픔을 씻고  
포용으로 마음을 녹였지.  
이젠 다시 싸우지 않을 거야.  
슬픔이 뭔지 깨달았으니까.





## 아름답고 행복한 꿈

50여 년 전  
전설 같은 우리의 역사를  
너와 나는  
슬픈 영화처럼 알고 있다.  
다른 삶을 살아왔다.  
지난 시간  
우린 하나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믿음  
서로 다른 노래 부르면서

승고한 영혼들의 참담한 상처와  
폐허가 된 세상  
그리고 녹슨 철조망  
이는 점차 벽이 되고  
우린 마주 볼 수조차 없었다.

알 듯 모를 듯  
너의 땅과 나의 하늘은



고통의 세월만큼이나  
목말라 하고 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대로 갈라설 순 없다.

꿈을 꾸다.  
지금처럼 새로운  
반세기가 지나가면  
휴전선의 울창한 숲이  
압록강으로 만주벌판으로  
그리고 내가 딛고 서 있는  
이곳까지 펼쳐지고  
우리 겨레 모두가 산과 들  
하늘과 바다와  
남과 북을 마음껏 오가며  
뛰노는 꿈

그 세월 뒤엔  
함께 백두대간을 오르며





아팠던 유월의 기억을 잊고  
너와 나 웃음꽃 피울 수 있겠지

꿈을 꾸다.  
휴전선의 녹슨 철조망과  
서로의 가슴팍을 겨누었던 총이  
박물관 유리관 속에 전시되고

애타던 기다림의 세월이 끝나  
너와 나 서로 부둥켜안고  
즐거워 할 꿈

가슴 쓸어내리는 안도의 한숨과  
우리 마음 상처 치료할 웃음이  
온 천하에 두루 퍼지는 꿈  
너와 나  
우리 온 겨레 하나가 된  
아름답고 행복한 꿈을



##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한반도가 높게 들고  
합성을 외치는 그날을

한반도의 허리를 졸라매고  
숨막히게 하는  
38선을 없애기 위해서

뽀뽀이 흩어져서  
그리움에 눈물짓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의 서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1만 2천 봉우리  
아름다운 금강산을  
구경하고  
북쪽 친구들과  
드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우정을 나누고

평양 옥류관에 가서  
맛있는 냉면을  
나누어 먹고 싶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한반도가 높게 들고  
합성을 외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을



## 듣고 싶어라

듣고 싶어라  
나의 손바닥과 너의 손바닥이  
슬픔과 공포도 없이  
서로 즐겁게 안을 때의  
행복한 소리를  
듣고 싶어라  
화해의 종과 존중의 방망이가  
경계와 무관심도 없이  
서로 정답게 어우러질 때의  
평화의 소리를

멀지 않은 눈앞에서  
너와 내가 눈을 마주한 채  
슬픔과 공포 그리고 경계와 무관심을  
행복한 소리와 평화의 소리에 씻어 버리고  
우리가 서로 손을 꼭 잡으며  
희망의 길로 뚜벅뚜벅 걷는 소리를  
듣고 싶어라



## 우리의 하늘

나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서  
평안도 어느 산골,  
시내가 아름다운 마을 여행을 했다.  
은빛 물장구치는 송사리 따라  
침병침병 시끄러운 사내 녀석들과  
열 손가락 가득 봉숭아꽃을 피우고서  
종다리처럼 재잘거리는 계집애들이 있는  
그 풍경 속에 멈춰선 할머니 주름진 눈가에는,  
늘 샛별가루가 뽀얗게 빛나고 있었다.

참으로 구운 감자를 좋아한 할머니 따라  
나도 덩달아 감자에 신날 무렵에  
민들레 하이얀 꽃씨가 되어 할머니는  
바람에 실려 하늘 가셨다.  
아마도 감자 드시러 가셨나 보다  
나중에 나도 하나 줄까 해서  
그래서 그런 거다 믿고서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구름에 걸린 봉래산 고운 풍경  
여름향기가 한 움큼씩 묻어 나오는



북녘의 초록여름이  
가슴 한 편에 진하게 스며드는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하늘에는  
따스한 손길로 나를 이끄시는 할머니 마음이  
구수하게 그려져 있는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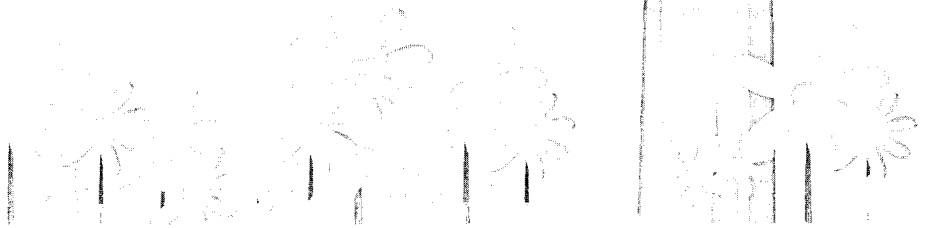
지금 시린 이슬의 속삼임에 일어나  
별빛이 흩어진 고요한 풍경 속에  
내 발걸음이 멈춘 이곳에는

하늘 물 마시고파  
부쩍 키 큰 백두와 한라의 가슴과  
고향을 품에 안은 우리 할머니와  
그리고 너와 나 서로의  
뜨거운 심장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손이 있기에

푸른 여명이 잘게 부서진 새벽에는  
어제보다 한 뼘 더  
가까워진 우리의 하늘이 있다.

- 노래 / 313
- 산 너머 친구에게 / 316
- 금강산 / 318
- 통일의 노랫소리 / 320
- 꿈 / 322
- 금강산 / 324
- 천사의 노래 / 326
- 미래에서 온 신문 / 328
- 춤추는 금강산 / 330

경상남도









## 노래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평양 예술단들의 공연

누가 한 민족 아니랄까봐

역시 낫설지 않은 어투

정말 잘하는 평양 예술단

어린이 같지 않은

가창력

잘한다. 잘한다.

감탄하는 관중들.

텔레비전으로

보는 나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우리 민족

고유의 춤숨씨,

그리고 한복.

‘하나’ 라는



플랭카드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휴전선은 나라를 갈라놓지만  
마음을 갈라놓진 않나보다.

서로의 눈빛으로 마음을  
주고 받는 시간.

이제는 끝날 무렵,  
어디선가 낮익는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  
뜨거운 눈물.

서로의 목소리를 합쳐 부른 노래.  
서로의 마음을 합쳐 부른 노래.  
남과 북이 마음을 합쳐 부른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 될 때까지  
이 노래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기엔,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엔….





## 산 너머 친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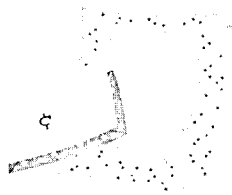
친구야 잘 들어봐.  
하나의 민족인 우리에게 꿈이 있어.  
지금 우리 손에 쥔 무기가,  
우리 기억 저 너머 한켠  
아린 상처 남긴 무기가  
언젠가 아련한 기억이 되길 바라는.  
두 번 다시 그때의 아픈 총소리  
되풀이하지 않고  
상처아문 그 자리에 우리의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그런 꿈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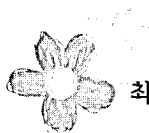
하나의 가족인 우리에게 꿈이 있어.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는 철조망이,  
우리 가슴 저 너머 한켠  
묵직하게 자리잡은 철조망이  
언젠가 흐릿한 기억이 되길 바라는  
북녘의 금강초롱 내음 맡을 수 있고  
남녘의 한라봉 가득 안을 수 있는  
푸른 풀밭 그 자리에 우리의 희망이  
피어나길 바라는 그런 꿈이 있어.  
어느 날,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알려



높은 하늘과 푸른 바다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날  
친구야, 우리 그때 부둥켜안고  
아픔과 슬픔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자.  
눈물로 기다려온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 질거야.

친구야, 우리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잊지말자.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라는 사실을...





## 금강산

울타리 너머  
달개비꽃 그림자 따라

오십년,  
젓빛 그리움 안고 찾아온  
이 산.

이 산에,  
풀꽃 반지 엮던  
당신들의 유년이,  
풀피리 소리 꺾가를 적시던  
그대들의 젊은 날이,

드러누운 능선, 밟아가는 걸음마다  
실낱같은 기억으로  
멈칫멈칫 맘을 돌고

이 땅에,  
유월의 시린 역사가 흩어 놓고 간  
질북은 흙빛의 비린 내음이



열아홉,  
복사꽃같이 붉어야 했을  
너의 뺨에,  
하이얀 꽃을 수놓았다.

문득, 우리의 등어리를 스치는  
비로봉 준령 노을 식는 소리에  
슬픔에 찬 고개를 들어 보니,

향수길은 염원은  
깊은 산 메아리가 되어  
빈 가슴 속을 후벼 파고 들었다

그리고  
내게 남겨진 숙제  
그것은  
녹음 짙음 유월의 봉래산,  
그 푸른 소나무의 힘찬 자맥질처럼

끊어진 한반도의 쓰러린 허리를  
평화의 몸짓으로 끌어안는 일.



## 통일의 노래소리

할머니 무릎에 누워  
6·25전쟁 이야기를  
듣고는 했지요.

그때 할머니는  
10살이였대요.  
전쟁으로 피난가다  
오빠와 헤어져야 했대요.

그때 생각이 나시는지  
할머니께서는 다정하게  
웃어주시던 정겨운 얼굴에  
눈물을 보이셨어요.

뭔가 생각이 나셨는지  
안방에 가서서  
사진첩을 꺼내오셨어요.

효정아...  
이 꼬마가 우리 오빠란다.  
오빠랑 나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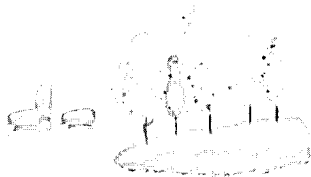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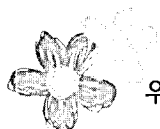


산책하며 불렀던  
'과수원 길' 노래가 생각나는 구나.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시는 할머니.  
어서 통일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야 할머니가  
활짝 웃을 수 있잖아요.

할머니와 할머니 오빠의  
정으로 마음이 이어진  
과수원 길노래처럼  
갈라진 남·북한도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 꿈

지난 밤 그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  
은 천지가 불바다로 변해버린  
그날을 떠올리며  
누구를 그리워 하였을까.

펜 잡고 공부하던 그 손에  
총 잡고 길 떠나던  
남편의 그 무거운 발걸음.  
이미 그 수줍던 미소 잃어버린  
그때의 새색시 꿈에 나왔을까.

해맑은 웃음으로  
붉은 노을빛이 물들 때까지  
동무들과 떡 감던 그 개천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된  
그때의 개구쟁이 꿈에 나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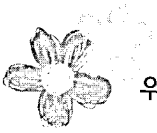
무서운 옛 이야기 들으면  
잠들지 못 하던 아이의 손  
따뜻하게 잡아주던 어머니의 그 손.



이미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된  
그때의 어린 소년 꿈에 나왔을까.

긴긴 밤 한숨 지으며  
바래져가는 사진을 보며  
흐릿해져만 가는 기억 붙잡고  
꿈에서라도 만나길,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 금강산

시퍼런 철조망으로  
선 하나 그을 때는  
지척에 두고 가슴으로 통곡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췌소리에 가슴닿아  
따뜻한 유월에도 시린 상처  
시간이 오래토록  
흔적을 남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자식이요,  
닮은 형제이며  
얼과 넋이 하나입니다.

오십 보면 어떠하고  
백 보면 어떠합니까  
지금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금강산 오를 줄 몰랐듯이  
한반도의 선 하나 지워내는



그날이 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금강산아!  
너는 통일의 희망이로다  
너를 밟고 손을 내밀고  
평양을 밟고 부등켜안고  
압록강에 발 담구는  
그날이 오면

비로소  
동해에 띄우는 햇살이  
투명한 제 살빛 드러내고  
백의민족 비상하니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질 걸  
우리는 모두 압니다.



## 천사의 노래

천사의 노래는 아주 특별한 노래지요.  
혼자서는 부를수 없는 노래지요.  
모두 한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노래지요.  
그게 바로 천사의 노래지요.

천사의 노래는 천사의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노래지요.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부르지요.  
모두 한마음이 되어 부르는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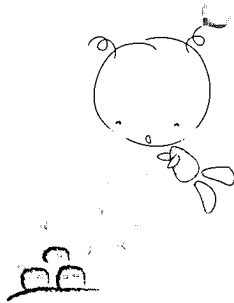
우리 마음속에는 통일을 바라는 마음들이 많지요.  
그 마음이 바로 천사의 노래의 가사가 되는 거지요.  
천사의 노래는 6·25전쟁때 총칼을 들고  
열심히 싸우다가 명예롭게 전사하신 용감한  
군인을 위로하고  
조금씩 통일을 재촉하는 노래지요.  
이렇듯 소중한 천사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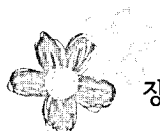
지금 우리 남과 북은 휴전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휴전은 전쟁을 다시 준비하려는  
휴전이 아니지요.



지난날 싸우던 걸 반성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천사의 노래를 완성해가는 시간이지요

이젠 얼마남지 않았어요.  
천사의 노래를 남북의 온국민이 부른다면 통일은 올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올거예요.  
천사의 노래 덕분에





## 미래에서 온 신문

매일밤 내 꿈속에서는  
아주 이상한 신문이 배달됩니다.  
미래에서 온 신문...

그 속의 통일은  
이산가족의 아픔이  
행복으로 바뀌어져 있고  
눈물 젖은 손수건은  
나비가 되어 하늘을 수 놓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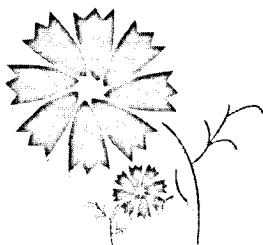
하나된 나라  
하나된 민족  
그 속에서 웃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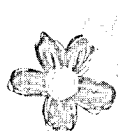
신문의 한켠엔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팠던 마음만큼  
그동안 흘렸던 눈물만큼  
힘차게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신문은 참 아름답습니다.





나는 오늘도 꿈에서 깨어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일도 미래의 신문처럼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 통일이  
꿈이 아닌,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  
열차가 힘차게 한번도를 달릴 것을....





## 춤추는 금강산

산이 있었는데  
푸르른 산이 있었는데  
중모리장단에 춤추는 푸르른 산이  
있었는데

그늘에서 해를 끌어내고  
잠자던 첫 닭이 해를 치자  
멀리 어데서 찢어지는 포성

산아 너는 차라리 눈을 감아라  
민족의 살점이 묻어나는  
일만 이천봉이 울고 있고

때아닌 진달래 흥건한  
산에 산천에

휘모리를 따라  
휘모리를 따라

새털 상모는 신명나게 돈다  
돌아나 간다



거기 아해야 함부로 산을 오르지 말며  
밭치에 놓인 그 꽃이 밍다하여  
쉬이 꺾지 말아라

비록 음지에 뿌리를 내렸다고 해도  
비록 가슴에 맹독을 품었다고 해도

그 산은  
그 꽃은  
네가 간단히 꺾으리만큼  
유약한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으니

새털 상모는 신명나게 돈다  
돌아나 간다

아해야 차라리 그 큰 손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의 그늘이나 되어주렴  
나는 산에다 대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울음을 울어야겠다



겨울을 봄이라한들  
꽃이 없는 봄을 진정 봄이라 하겠는가  
겨울을 봄이라한들  
얼음장 밑 흐르는 슬픔을 외면이야  
하려는가

새털 상모 신명나게 돌아 나가듯  
우리도 절로 흥에 겨워 돌아나 가봤으면

철조망이 그 아무리 높을진들  
철조망이 그 아무리 높을진들

흘러가는 바람 한줌 구름 한조각  
붙잡지 못하는데

하물며 7천만의 가슴에 맺힌  
단 하나의 염원은 어떠하랴!  
하는데

봄이 훑고 지나간 베를린의 장벽 틈에선  
어느새 하이얀 데이지 몇 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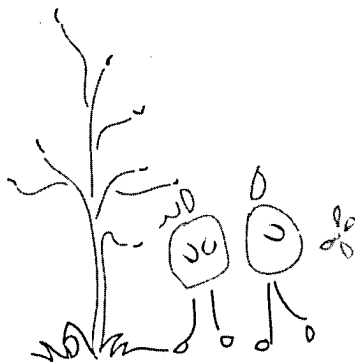
빼꼼이 고개를 내밀었다 하더이다

언젠가

언젠가 그날이 오면은

산은 비로소 감은 눈을 다시 뜨고

기꺼이 어깨춤을 출 거외다





- 통일아, 좋겠다 / 337
- 오늘도 바람에 연을 실는다 / 339
- 희망을 노래합니다 / 341
- 친구야, 우리 함께 / 344
- 통일이 되면 / 346
- 얼음 촛대 / 348
- 6월의 아픔 / 350
- 통일 장보기 / 352
- 별 / 354

제주도







## 통일아, 좋겠다

통일아, 넌 인기가 많아서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널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널 바라고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잖아  
내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너보단 못할거야

통일아, 넌 힘이 세어 좋겠다  
백두산에서 흐르는 물로  
독도도 쓰다듬고 한라산도 안아주고  
땅도 섞고 물도 섞어 울통불통  
근육이 생기면 너보다 힘센 건 없을거야

통일아, 모두가 칭찬하니 넌 좋겠다  
너 때문에 평화로워진다고 하고  
너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하고  
너 때문에 화해가 생긴다고 하고  
세상의 착한 일은 네가 다 하는구나

통일아, 좋겠다  
사람들은 네 생각만 하면 웃고  
네 생각만 하면 즐거워하고



네 생각만 하면 작았던 꿈도 커지고  
네 생각만 하면 희망으로 가득차는구나

통일아, 나에게도 오렴.  
나비같이 잡힐 듯 잡힐 듯 숨바꼭질 하지 말고  
구름처럼 뭉쳤다 흩어졌다 하지 말고  
나에게도 와서 어깨동무 해주렴





## 오늘도 바람에 연을 실는다

서로 겨누던 총부리 끝의 증오도  
이제는 씻겨져 눈물로 변했다.

철조망 너머의 네 모습이  
이제는 너무 멀어 보여  
자꾸만 눈물이 흘러나온다...

날개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날아가  
못다한 얘기, 전부 쏟아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나는 오늘도  
눈물로 연을 빛낸다.

‘바람아, 이 연을 하늘 높이 들어올려 주렴.  
그가 볼 수 있을 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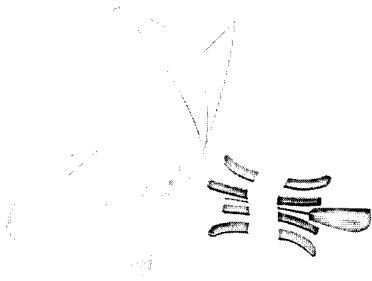
너도 울고 있었겠지  
그 차가운 벽 너머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네 뒷모습에서 눈물이 보였으니까...



표정은 차갑게 굳었지만  
너도 울음을 삼키고 있음을  
나도 알고 있기에...

너에게 닿도록 나는 오늘도  
바람에 연을 실는다.





## 희망을 노래합니다

### 1.

등글고 커다란 소나무  
나이테에 너의 역사가 보인다.  
내가 걸어온 길...,  
네게 불었던 바람...,  
그러나 청렘했던 너의 몸뚱아리가  
누군가의 도끼질로  
한많은 망령이 되어 버렸구나.  
하지만 이 땅 위에 푸른 빛을 자랑하던 너  
모든 바람을 이기고 꺾꽂이 섰던 너이기에  
다시 그날을 그리며  
파란 하늘에 푸른 솔가지와 솔방울을 펼칠  
그날을 그리며  
희망을 마음에 새기고  
푸른 싹을 네 몸위에 피운다.  
너의 역사를 다시금 펼칠 어린 싹을 피운다.

### 2.

친구야  
내가 네게 손을 뻗고  
네가 내게 손을 뻗었는데



어찌 이리 잡기가 어려운 것일까...  
잠시 지나간 침묵에  
우리는 하나였던것 조차 잊어버렸는가...  
숨쉬는 소리마저  
땃박뛰는 소리마저  
이렇게 서로 엇갈렸던가...  
순수했던 그날에  
우리가 하나였던 그날이  
이제는 철조망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시절이 되어버렸네.  
같이 걷던 길이  
양갈래로 나뉘어  
우리의 마음에 상처만을 남겼구나.  
하지만 친구야  
우리 다시 만나 손잡고 예전처럼  
함께 할 그날을 위해  
미래를 위해 약속을 하자.  
서로 같은 길을 걸으며  
떨어진 아픔을 모르는 마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로...



### 3.

희망을 노래합니다.

저 벽 너머 나의 가족들에게….

이제 곧 우리의 만남은

현실이 되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나긴 이별을 접고

흘러버린 시간을 보상해줄

우리의 시간…, 그때가 오면…,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낸 한많은 눈물보다

지금 우리의 몸 속에 흐르는 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웃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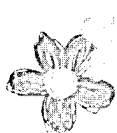
우리를 하나로 엮어줄 사랑이 될 것이라고…,

나는 그날이 올 것이란 걸 알기에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 친구야, 우리 함께

친구야,  
우리 함께  
산에서 가오리연 날릴까?

네 손으로 연 머리잡고  
내 손으로 연 꼬리잡고  
하나, 둘, 셋 외치며  
푸른 하늘 향해  
힘차게 날려보자.

하늘 가득  
떠다니는 가오리연  
나무 밑 그늘에 앉아  
가만히 쳐다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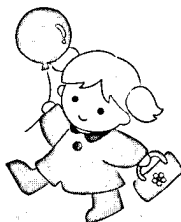
사랑사랑  
봄바람에  
요술처럼 춤을 추는 연 꼬리  
순간 소리쳤지.  
'우리나라 지도'야  
두 손 꼭 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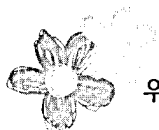




친구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우리의 연  
휴전선도 넘어  
평화 통일 이루는  
우리의 꿈 담고  
훨훨 나는 통일의 연  
친구야,  
우리 함께 날리자.





##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  
50여 년간 헤어져 있던  
이산가족의 아픔과 눈물  
깨끗이 깨끗이 닦아줄텐데….

통일이 되면  
북한어린이, 남한어린이 다같이  
재미있게, 신나게 뛰어놀텐데….

통일이 되면  
여태껏 멈춰 서있던 기차를  
마음껏 달리게 해줄텐데….

통일이 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한민국의 경치를 바라보며  
구경하고, 등산할 수 있을텐데….

통일이 되면  
우리를 갈라놓았던  
휴전선 걷어치우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예쁜 꽃들을 심어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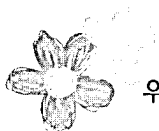
통일이 되면  
전쟁이 남기고 간  
아픔과 슬픔 그리고, 눈물...  
깨끗이 깨끗이 씻어줄텐데...

통일이 되면  
이 모든 것 다 이룰수 있을텐데...

7천만 겨레의 소원  
통일...

내일이면 이루어지겠지...  
내일이면 만날 수 있겠지...





## 얼음촛대

시작에 하나였을 불꽃은 타오른다.  
싸늘한 얼음촛대 위에서.

뿌리부터 하나인 촛대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꽃을 토해낸다.

간절한 불빛은 타오르는데  
불투명한 얼음벽 안에는  
제 몸을 모두 태워낼  
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래 언제부터였던가?  
차가운 양갈래 촛대에  
끄지 못할 붉은 빛을 피워낸 날은….

두꺼운 얼음벽 안에  
끊지 못할 심지를 세운 날은….

촛대 아래 쓰여진 이름은  
'우리' 입에 틀림 없는데.



태워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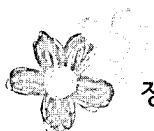
어차피 그 누구도 꺾지 못할  
얼어붙은 촛대가 아니던가.  
서로 삼키지 못할 제 몸이 아니던가.

태워내자!

냉막한 촛대 이곳저곳에  
심지를 세우고 또 세워서  
양갈래 촛대를 하나로 이어서  
얼음벽을 씻겨낼 불꽃을 피워내자.

모든 것을 되돌린 불꽃은  
'우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리.  
시작도 하나였을 불꽃이 타오른다.





## 6월의 아픔

6월이 되면  
토란잎에 고인 물방울에  
멀리 떨어진 이산가족들의  
슬픈 얼굴이 비칩니다.

6월에  
내리는 비는  
그들의 서러움이 담긴  
눈물입니다.

갈라진 슬픔과  
만나지 못하는 아픔이  
비가 되고, 이슬이 되어  
방울방울 맺힙니다.

이름모를 작은 꽃도  
몇십 년간 산 나무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바람에게나 속삭여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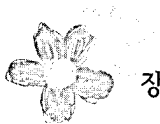


조그만 새도, 조그만 곤충도,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그려넣은  
선 하나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슬프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엔  
비가 오지 않고  
무지개가 떴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기쁨의 웃음을 짓도록….

다시 6월이 오면  
토란앞에 고인 물방울에는  
우리 모두 웃는 모습이  
가득히 비춰졌으면 합니다.



## 통일 장보기

### 즐거운 장보기 1.

마트에 가면  
세계가 한 눈에 있다.

칠레산 포도  
호주산 쇠고기  
중국산 옥돔까지  
미국산 초콜릿은 언제봐도  
반갑다.

### 답답한 장보기 2.

이천 백미  
울릉도 오징어  
북한산 표고버섯  
북한산 갠 호두  
북한산 고사리  
북한산 감자





산 너머 북에는  
감자사러 어떻게고  
벼섯사러 어떻게리

### 통일 장보기 3.

신의주 표고버섯  
개성 깎 호두

다 같은 김씨 이씨  
박씨가 가꾼 신토불이 토종.

북한은 나뉘어진  
또다른 조국이 아니다.  
내 나라 내 땅 우리고을로  
이름 붙여라.

제주산 자리돔  
평양산 냉면이면 오죽 좋으리.



## 별

검은 그림자의 밤  
자갈 밭 위에 누워  
유난히도 슬피우는 별을 보았다.

저 먼 땅에서도  
찬란하게 눈물을 흘리는  
보석이 보일까.

오늘도 보석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많은 이들의 소원을 들겠지.

사무치는 감정들에  
상처받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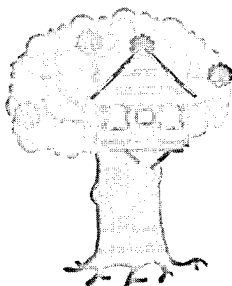
찬란하던 빛이 시들해진 것은  
알미운 먹구름이고  
더러운 비비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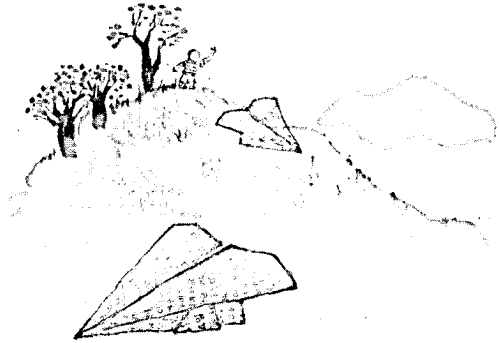
아름다움을 아첨하는 것들에 여의치않고  
검은 그림자의 밤  
유난히도 슬피우는 별을 보았다.

많은 이들의 소원이  
모두 하나라는 사실이  
별을 가슴 아프게 한다.

하나여서 아름답지만  
둘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가슴을 죽인다.







# 산 너머 강구에게

2005 제10회 학생 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운문집

초판인쇄일 2005년 9월

초판발행일 2005년 9월

발행처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 901-7122

홈페이지주소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디자인·인쇄 현프린트

전화 02) 2273-7142

